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PRACTICAL STRATEGY FOR REVITALIZING PRAYER MINISTRY IN A LOCAL CHURCH BASED ON PRINCIPLES OF THE LORD'S PRAYE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HESARANG CHURCH

written by

IN HO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Hyung Kook Oh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July 31, 2015

A PRACTICAL STRATEGY FOR REVITALIZING PRAYER MINISTRY IN A LOCAL CHURCH BASED ON PRINCIPLES OF THE LORD'S PRAYE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HESARANG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IN HO LEE

JULY 2015

지역교회에서의 주기도 원리에 따른 기도 사역 활성화 방안
- 더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오 형 국 교수

이 인 호

2015년 7월

Abstract

A Practical Strategy for Revitalizing Prayer Ministry in a Local Church Based on Principles of the Lord's Praye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hesarang Church

In Ho Lee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lthough the Korean church experienced staggering numerical growth in the past, since the 1990s it has been stagnant. In order to overcome this current challenge, I insist that Korean churches must pray harder and more faithfully. The Lord's Prayer is the best model we Christians have to follow. Thus, in order to pray faithfully, we can gain wisdom from the Lord's Prayer.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esent a practical strategy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Lord's Prayer for revitalizing prayer ministry in local churches.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Chapter 1, the introductory chapter, presents the purpose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Chapter 2 discusses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Lord's Prayer. Understanding the Lord's Prayer through the lens of the kingdom of God, this chapter determines principles or factors necessary for Christian prayer ministry. Chapter 3 then seeks models of prayer ministry from Scripture and church history that might follow the principles of the Lord's Prayer.

Chapter 4 describes the history, background, pastoral philosophy, vision, and current state of the Thesarang Church, after surveying the area where the church is located in terms of demography, culture, and religion. This chapter then examines the Thesarang Church's prayer ministry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Lord's Prayer studied in chapter 2. Chapter 5 presents a practical strategy for revitalizing the Thesarang Church's prayer ministry. This chapter shows how the

church selects topics for prayer and how the church applies the principles of the Lord's Prayer to its various public worship services and intercessory prayer meetings. Praying properly and faithfully requires discipline. Thus, this chapter describes how the Thesarang Church trains its members to pray better through various programs.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and suggesting direction for further study.

Theological Mentors: Hyung Kook Oh,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더사랑의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생각만해도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더사랑의 교우들, 그들과의 지난 시간의 신실한 사역의 발자취가 본 논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오늘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함께 무릎 꿇으며 땀과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목회의 든든한 동역자인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에게 감사 드리며, 풀러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서 목회중에도 공부하며 성장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교회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세윤 교수님을 비롯한 귀한 교수님들과의 만남과 그분들의 소중한 가르침이 목회의 토양에 좋은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논문 지도를 해 주신 오형국 박사님과 최승근박사님, 황진기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논문을 세심하게 도와주신 김태석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부모님과 나의 동생들, 늘 격려해주시는 장인, 장모님과 처남들, 그리고 언제나 돕는 베필로 천사처럼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바쁜 아빠를 이해해주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주는 수아, 상헌, 시온이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2015년 7월 이인호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 4

제 2 장 기도사역을 위한 주기도의 신학 ····· 7
제 1 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주기도문 이해 ····· 7
1. 주기도문의 방향과 목적 ····· 8
2. 주기도문의 구조 ····· 9
제 2 절 당신 청원 ····· 10
1. 당신 청원의 핵심 '나라가 임하소서' ····· 10
2. 하나님 나라 ····· 11
3.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기도 방법 ····· 12
제 3 절 우리 청원 ····· 22
1. 일용할 양식: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 22
2. 죄용서: 사랑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 24
3. 시험과 악한 자: 소망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 26
제 4 절 서언, 종영, 부언에 나타난 주기도의 특성 ····· 27
1. 서언: 공동체의 기도 ····· 28
2. 송영: 최후 승리의 확신 ····· 29
3. 부언: 끈질긴 기도의 자세 ····· 30

제 3 장 주기도와 기도사역 ····· 32
제 1 절 유대주의(Judaism)의 전통에서 본 주기도 ····· 32
1. 유대교의 하루 세 번 기도 ····· 33
2. 유대기도의 완성으로서의 주기도문 ····· 36

제 2 절 성경에 나타난 기도사역 ····· 38
1. 예수님의 기도 모범 ····· 39
2. 사도들의 기도 사역 ····· 41
제 3 절 교회사 속에 나타난 주요기도운동 ····· 43
1. 종교개혁과 루터, 칼빈의 기도 ····· 43
2.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기도 운동 ····· 46
3. 대각성 운동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도 ····· 48
4.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과 기도사역 ····· 50
5. 한국교회 기도의 침체와 그 원인 ····· 53

제 4 장 더사랑의교회의 기도사역의 시작과 열매 ····· 56
제 1 절 기도사역의 태동과 열매 ····· 56
1. 기도사역을 하게 된 배경 ····· 56
2. 기도사역의 토대 형성 ····· 60
3. 기도사역의 시작과 정착 ····· 62
4. 기도사역의 열매 ····· 64
제 2 절 변화된 환경과 기도사역의 재정립 ····· 68
1. 새로운 변화가 가져온 과제와 위기 ····· 69
2. 목회철학의 재정립 '다시 본질로' ····· 75
3. 목회철학의 근간으로서의 기도사역 재정립 ····· 79

제 5 장 더사랑의교회 기도사역의 실제 ····· 83
제 1 절 주기도문을 응용한 기도제목 ····· 83
1. 주기도문의 세 가지 영역 ····· 83
2. 세 종류의 기도카드 ····· 85
제 2 절 정기기도집회에서의 주기도 적용 ····· 90
1. 수요심야기도회(매주) ····· 91

2. 특별새벽부흥회(봄/가을) ····· 94
3. 기도폭풍집회(분기별) ····· 97
4. 기도회 인도자의 영성과 자세 ····· 99
제 2 절 중보기도사역을 통한 주기도의 적용 ····· 102
1. 더사랑의교회 중보기도사역의 개요 ····· 103
2. 주중 릴레이 중보기도사역 ····· 105
3. 주일 예배 중보 기도사역 ····· 108
4. 긴급문자(SMS) 중보사역 ····· 116
5. 주일설교 준비를 위한 토요 중보기도 모임 ····· 116
6. 중보기도단 일일 부흥회 ····· 116
제 3 절 기도학교 ····· 117
1. 더사랑의기도학교 ····· 117
2. 중보기도학교 ····· 118
3. 주기도학교 ····· 119
제 4 절 기도사역팀 결성과 운영 ····· 120
1. 지속적인 기도사역의 한계 요인 ····· 120
2. 기도사역팀의 필요성 ····· 121
3. 기도사역팀의 비전 ····· 122
4. 기도사역팀의 구성과 사역 ····· 122
5. 기도사역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언 ····· 124

제 6 장 결론 ····· 125
제 1 절 요약 ····· 125
제 2 절 제언 ····· 127

참고 문헌 ····· 129

Vita ····· 134

표 목 차

<표1> 연도별 중보기도 헌신자 숫자 및 헌신시간 ····· 63
<표2> 제출된 중보기도카드에 따른 유형분류 ····· 65
<표3> 새벽기도 연평균 출석인원 ····· 65
<표4> 수요기도회 연평균 출석인원 ····· 66
<표5> 장년부 연도별 주일출석 통계 ····· 67
<표6> 2015년 더사랑의교회 거주 지역별 성도분포 ····· 70
<표7> 수지구 가구원 교육정도 ····· 70
<표8> 수원시 가구원 교육정도 ····· 71
<표9> 수지구 월 평균소득 분포 ····· 71
<표10> 수원시 월평균소득 분포 ····· 71
<표11> 더사랑의교회 청장년 연령별 비율 ····· 72
<표12> 용인시 연령별 인구 구성비 ····· 73
<표13> 수원시 15세 이상 연령 분포(수원시 100% 기준) ····· 73
<표14> 주일학교 연도별 평균출석 ····· 74
<표15> 연도별 특별새벽부흥회 출석통계 ····· 95
<표16> 중보기도사역 통계 ····· 107
<표17> 중보기도학교 커리큘럼 ····· 119

그 림 목 차

<그림1> Teaching 사역의 개요 ····· 77
<그림2> Healing 사역의 개요 ····· 77
<그림3> Evangelizing 사역의 개요 ····· 79
<그림4> 목회철학의 연결고리인 기도 ····· 8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모든 것들은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는 생애 주기를 가진다.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도 처음 개척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수고할 때에 성장하다가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갑자기 2배, 3배씩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들어서는 지점에서 성장이 멈추고 그러다가 쇠퇴기를 맞이한다. 유럽의 교회역사는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은 한국교회는 이미 성장기를 지나서, 1990년도 후반부터 성숙기에 들어섰고, 지금은 쇠퇴기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한다.[1]

한국교회가 1960년대에는 연평균 10만 명씩, 1970년대에는 연평균 20만 명씩, 1978년부터는 연평균 100만 명씩 급성장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로 불리었고, 세계 10대 대형교회를 자랑했고 세계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한국교회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980년대에 이르면서 약 5퍼센트대 미만의 성장으로 주춤하다가 1990년대에 부터는 정체내지는 완만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2] 문을 닫는 교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한 때 기도하러 온 성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기도원들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다. 신학교 입학생도 줄어들고 있고 대학생 선교 단체도 현저하게 줄고 있으며 73퍼센트가 넘는 교인들이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하고 1인당 전도하는 평균 숫자가 불교인보다 낮다.

---

1)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지속가능한 한국 교회를 위한 최초의 미래학 보고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45.
2) Ibid., 298.

지난 10년 동안 천주교는 186만에서 514만 명으로 성장했고, 불교는 1,072만 명으로 늘었고 이단들까지도 성장했는데 오직 기독교만 줄어들었다는 통계이다.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호감 종교에 대한 조사 결과는 25퍼센트가 불교를, 다음은 천주교(18퍼센트), 개신교(10퍼센트 순이었다.[3] 한목협의 조사에 따르면 비종교인 중에 과거 종교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가 50퍼센트 천주교가 24.3퍼센트 불교가 25.6퍼센트로 기독교의 이탈현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4] 불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앙 전승률이 9퍼센트에 이르고 있고 이슬람교는 신앙 전승률이 100퍼센트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아버지 혼자 믿으면 57퍼센트, 어머니 혼자 믿으면 70퍼센트라고 한다. 현재 주일학교 인원수는 장년대비 3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고 매년 30퍼센트씩 줄고 있어서 이대로 30년이 지나면 3-4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러한 거센 쇠퇴기의 물결에 저항하지 못한 채 휩쓸려가고 있다.[5]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말 것인가?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시대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유럽교회가 쇠퇴기를 걷고 있을 때에 로이드존즈(David Martyn Lloyd-Jones)가 외쳤던 말을 주목해야한다. 로이드존즈는 당시 교회 쇠퇴기의 상황을 보면서, 2백 년 전 교회의 상황을 언급한다. 그 때에도 교회는 텅 비어 있었고 상황은 더 심각했지만 부흥은 일어났고 교회에 생기가 돌았다고 회상한다. 로이드존즈는 쇠퇴기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과거의 선조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한다고 조언한다.[6]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파야할 우물이 무엇일까? 과거에 거기로부터 물이 나오던 우물, 그런데 지금은 막혀있는 우물은 무엇인가?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전성기엔 기도가 살아있었다. 그런데 지금 쇠퇴기에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바로 기도의 침체이다.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배후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다. 기도 없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

3) NEWSM.COM "호감도는 최저, 탈종교화는 가속: 한국갤럽, 2014년 한국 종교실태 조사 결과 발표(편집부, 2015.01.30)"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6.
4) 크리스천투데이, "교회 다니는 이유, 구원은 줄고 축복은 늘었다: 한목협, 2012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조사 결과 발표"(신태진 기자, 2013.04.19).
5)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42.
6) David Martyn Lloyd-Jones,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 (Revival)*, 정상윤 역(서울: 복있는사람, 2006), 33-36.

없다. 그러므로 기도의 침체는 곧 하나님의 역사의 침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신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신다(왕상 18:1, 41-46; 렘 29:10-14 개역개정).[7]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더치 쉬츠(Dutch Sheets)는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을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였다.[8]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칼빈(John Calvin)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9] 개인적으로도 각 사람의 기도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배후에 교회의 기도가 있었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배후에 기도의 헌신을 담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신다(마 6:33, 눅 12:31).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무력하고 잠잠하다면 그 원인은 바로 기도의 자원을 잃어버린데서 찾을 수 있다. 한때 한국교회 안에서 활활 타오르던 기도의 불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나마 남아있는 기도의 불씨마저 꺼져버릴지 모르는 기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왜 한국교회를 오늘에 이르게 한 이 소중한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이고 기복적이었다는데 있다. 물론 우리는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문제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바로 거기서 멈추었다는데 있다. 소득이 늘고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전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동안의 기도의 동기가 다분히 개인적이고 기복적인데 기초해있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대한 일을

---

7) "이하의 모든 성경 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개역개정 성경을 따른다."

8) Dutch Sheets,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김주성 역(서울: 베다니, 1998), 42.

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하)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제20장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 그리고 기도로써 얻는 일상적인 유익' 중 2절 '기도의 필요성'

이루고자 하시며,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고자 하시는가하는 기도의 특권과 사명을 잊어버렸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타락한 기도에 대한 루터의 기도의 눈뜸, 기도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10] 이처럼 한 시대에 부흥은 바로 이 기도에 눈뜸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진정한 기도의 목적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한 기도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함으로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다(요 14:12-13).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부름 받은 것이다. 마치 대통령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은 장관이 그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기 위한 엄청난 기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의 특권과 사명에 무지하기에 마치 억만장자이신 하나님께 겨우 짜장면 한 그릇 달라고 요청하고 그 배부름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결국 잘못된 기도의 동기가 기도의 침체를 가져왔고 기도의 침체는 오늘 한국교회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침체에 대한 해답으로서 기도가 다시 살아야할 것을 전제하면서 "어떻게 교회 내에 기도사역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도위에서 성장했다. 더사랑의교회도 창립 초기부터 중보기도사역의 토대위에서 성장해왔다. 지난 12년 동안 기도사역의 토대위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이 주기도문 속에서 기도사역의 가능성과 능력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 그 동안 해왔던 기도사역의 성경적인 토대를 주기도문에서 찾게 되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사역한다면 더 놀라운 기도의 부흥이 일

---

10) Joel Beeke & Brian G. Najapfour, *고전에서 배우는 기도특강 (Taking Hold of God)* 이혜림 역(서울: 예수전도단, 2014), 17.

어날 것이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서 그 동안 기도사역을 통해서 맺은 목회의 열매들을 돌아보며, 기도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연약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기도 사역의 신학을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재정리하고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사상과 목적의 빛 아래서 모든 기도사역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와 본 연구자가 더사랑의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현장에서 취득한 사역 및 경험 그리고 목회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과 범위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사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오늘날의 교회에 기도사역을 접목시킬 것인가에 있다. 더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도사역을 주기도문의 정신 속에서 살펴보고 재정립함으로서 앞으로 교회 내에서 기도사역을 펼쳐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주제, 연구의 동기와 목적, 연구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서술한다.

2장에서는 기도사역을 위한 주기도의 신학을 논의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주기도문의 핵심청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그 정신을 계승하여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끝으로 주기도문의 부가적인 특징들을 다루고자 한다.

3장에서는 주기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도사역의 역사적인 근거를 살펴본다. 유대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뛰어넘는 주기도문의 성격을 살펴보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기도사역을 어떻게 실천하였는가에 대한 성경의 실례를 연구한 후, 교회사적으로 중세교회, 근대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사역이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살펴봄으로서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른 기도사역의 역사성을 확인하고 기도사역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기도사역이 더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태동되었고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루고자한다. 왜 교회 내 기도사역이 필요하며, 기도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토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기도사역을 시작하고 정착하였는가에 대해서 기도사역을 실행한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기도사역의 결과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환경이 가져온 과제와 위기 속에서

주기도의 정신에 입각한 기도사역의 철학과 전략을 어떻게 재정립하였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5장에서는 더사랑의교회 기도사역의 실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응용하여 어떻게 기도제목을 만들 것인가, 정기기도집회와 중보기도사역을 통해서 주기도의 정신과 목적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여 인도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기도학교를 운영하는 방법과 교회 내 지속적인 기도사역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 기도사역팀을 결성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제6장에서는 논문의 요약과 결론적 제언을 통해서 결론을 맺는다.

제 2 장
기도사역을 위한 주기도의 신학

오늘날 많은 기도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신학적 토대는 불분명하다. 실제적인 성경의 근거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기도를 요술방망이처럼 부풀려 강조하다보니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 기도사역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교회의 기도사역을 강조하기 전에 성경에 근거하여 신학적인 뿌리를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름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이러한 기도사역의 근거로서 소중하고 정확한 기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신학적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고, 이와 더불어 주기도문의 서언, 종영, 부언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특성도 밝혀냄으로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기도운동의 근거와 원천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고자한다.

제 1 절 하나님나라 관점에서의 주기도문 이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마 6:9)'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헬라어 Ουτως로서 영어성경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NIV, KJV)의 의미로 표현한다.[11] 이것은 그저 자구적인 답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내용 및 그 순서상의 방법에 대한 올바른 기도의 모범적인 제안을 의미한다.[12]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유대적인 전통을 따라서 문자 그대로 암송하도록 하셨다고 주장하

11) 김형국,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61.
12) 강병도, *마태복음*, 호크마종합주석(서울: 기독지혜사, 1999), 268.

기도 한다. 1세기경 작성된 디다케(Didache, 열두 사도 교훈집)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 세 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유대교 회당에서 내려오는 관습을 따라서 하루 세 번씩 주기도문을 암송하였다.[13] 그러나 칼빈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으로서 단순히 주기도문의 문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내용과 기본적인 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말한다. 기도에 사용되는 용어는 전혀 다를지라도 그 뜻은 주기도문의 가르침과 일치해야한다는 것이다.[14] 누가와 마태를 비교해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판박이처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의 본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요약판으로 이해해야한다. [15]

결국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것은 그것을 예배시간마다 그대로 암송하라는 의미보다는 그 내용 그 정신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다. 물론 주기도문을 예배의식으로 삼음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습관적인 암송이 진정한 주기도의 능력을 앗아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주기도문을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범적인 기도로서 그 내용과 그 사상을 따라서 기도해야한다. 기도하는 언어는 다를지라도 그 기도하는 내용은 주기도의 맥락과 같은 것이 될 때에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주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방향과 목적 속에서 계속되는 절을 통해 주기도문이 말하는 핵심 사상과 내용을 살펴보고자한다.

1. 주기도문의 방향과 목적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나라를 이루어주시길 소망하며 나름대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였던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운동, 에센파운동 그리고 세례요한의 운동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학, 정체성 그리고 비전과 목적을 담아서 특별한 기도문

---

13) 조기연, *기도의 정석*, 21-23.
1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중)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494.
15)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기도 (Prayer: Experiencing Awe and Intimacy with God)*, 최종훈 역(서울: 두란노, 2015), 171.

을 작성하였다.[16]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배경을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바라본다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상과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요약'[17]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억지가 아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소명과 목적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초청하시는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다.[18] 그런면에서 주기도문은 교회의 공동체 선언문과 같은 것이요, 이 기도를 드림으로서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운동에 동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2. 주기도문의 구조

주기도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주어가 2인칭 단수인 당신(σου)으로 되어 있어 '당신청원'이라 하고 후반부는 주어가 1인칭 복수인 우리(ημων)로 되어 있어 '우리청원'이라고 한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세 개의 당신청원과 세 개의 우리청원으로 되어 있으나 누가는 두 개의 당신청원과 세 개의 우리청원으로 되어 있다.[19] 주기도문은 마태판 보다 누가판이 먼저 쓰인 것으로 보는데, 마태는 세 개의 우리 청원에 맞추어 당신 청원을 세 개로 만들어 짝을 맞추고, 송영 부분을 추가하여 예배용으로 완성한 것으로 본다.[20]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서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청원	(1)(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16)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서울: 두란노, 2000), 14.
17) Ibid.
18) Thomas Nicholas Wright,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 (Lord and His Prayer)* 전의우 역(서울: IVP, 2014), 10.
19) Donald A. Hagner, *마태복음*, WBC성경주석, 채천석 역(서울: 솔로몬출판사, 1999), 287.
20)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서울: 두란노, 2000), 39-40.
21) Ibid. 57

(3)(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청원 (1)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2)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3)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당신청원 3가지 우리 청원 3가지 모두 6가지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한 기도이고, 후반부는 일용할 양식, 죄용서, 시험과 악에서 구하길 요청하는 공동체의 필요와 보존을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주기도문의 당신청원과 우리청원 두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당신 청원

1. 당신 청원의 핵심 '나라가 임하소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당신 청원 세 가지는 접속사 없이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우리 청원 세 가지는 접속사(kai.)로 연결되어 있다. 부정과거 형태와 하나님을 주격으로 하는 수동태를 적용하는 당신청원 세 가지는 하나의 구속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게르하르트손(Gerhardsson) 같은 학자는 이를 "세 부분의 대구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도"라 부른다.[22] 유대전통에 비춰볼 때에도 당신 청원의 첫 번째 기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독립적인 청원이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으로 보는 것이 유대교의 카디쉬 기도의 전통의 흐름에 더 부합한다.[23] 또한 누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세 번째 청원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도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한 간구를 확장한 것으로서 나라가 임하는

22) Donald A. Hagner, *마태복음*, 290

23) John. Nolland. *누가복음*. WBC성경주석, 김경진 역(서울: 솔로몬출판사, 1999), 342.

그 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24] 결과적으로 당신 청원의 핵심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세윤 교수는 *주기도문강해*에서 주기도문의 청원을 한 개의 당신청원과 세 개의 우리 청원으로 본다.[25]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도 당신청원의 세 가지 기도는 영광스러운 날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라고 말한다.[26] 톰 라이트(Thomas Nicholas Wright) 역시 그의 저서 *주기도와 하나님나라*에서 이 세 가지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란 제목으로 하나의 장으로 통합한다.[27] 그러므로 당신청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다.

2.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여기의 나라는 βασιλεια로서 왕국을 말한다. 사복음서에 βασιλεια라는 단어가 123회 나타난다.[28] 이 나라, 즉 왕국은 오늘과 같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왕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진 절대왕정을 말한다. 이 단어는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의 의미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의 의미 둘 다를 가지고 있지만 통치의 의미로서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29]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권인 왕권에 있다. 나라의 요소인 영토와 백성도 중요하지만 왕권이 확립되어 있을 때에 그 나라의 주권이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30]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나라이고(사 52:7-10),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31]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

24) John. Nolland. *누가복음*. WBC성경주석, 342
25)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 43.
26) 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Concerts of Prayer)* 정성욱, 황혁기 공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0), 121.
27) N. T. Wright,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 37-49.
28) John Koenig, *신약성경의 기도 (Rediscovering New Testament prayer: boldness and blessing in the name of Jesus)* 오성춘 역(서울: 하늘향, 2014), 84.
29) 조기연, *기도의 정석: 초대교회에서 배우는 영성 깊은 기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39.
30) 김남준, *깊이 읽는 주기도문*,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146.
31) N. T. Wright,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Surprised by Hope)* 양혜원 역(서울: IVP, 2009), 310.

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맥을 이어오는 여러 운동들의 기도와는 두가지면에서 그 차원이 다르다. 첫째로 주기도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가득하길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사단의 통치에 맞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는 새로운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32] 그러므로 주기도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구약의 기도운동과는 달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도래와 번성을 위한 기도이다. 비록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도 이미 시작된 주의 통치가 완성되어 모든 사람들이 주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 것이다.[33] 둘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나 다윗왕조의 회복 등의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34]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의 실존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나라이다.[35] 그러므로 그 나라는 근본적으로 내면적이고 영적인데서 부터 시작하는 나라이다. 신자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아래 들어갈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나라로서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누룩처럼 번져서 온 세상을 덮는 바로 나라인 것이다. 신·구약 성경은 장차 올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이며 확실히 약속된 나라인지를 수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36]

그러므로 당신청원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한다. 주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기도는 우리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3.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 방법

그러면 주기도문의 목적과 사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

---

32) John Koenig, *신약성경의 기도*, 32.
33) 김형국,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서울: 죠이선교회, 2013), 179.
34)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106-111.
35) Ibid., 119.
36) 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75-78.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일이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는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눅 3:22).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강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다(마 4:23; 9:35).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요약하는 구절의 중간에 하나님 나라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37]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게 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첫째로 성령을 구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둘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구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마 3:16, 막 1:10, 눅 3:22). 바울은 이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었다고 말함으로서(행 10:38), 이 세례가 메시아 임직식으로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는 사건임을 알게 해준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갈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셨다(마 12:28). 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로서[38] 하나님나라의 도래는 성령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한다고 하셨다(요

37) John Koenig, *신약성경의 기도*, 84.
38) Geerhardus Vos,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urch)* 정정숙 역(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1), 70.

3:5)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분리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신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실재(reality)가 되도록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또한 모든 구약의 예언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현시키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성경의 약속의 구현자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기다려야할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이셨다(눅 24:49, 행 1:4).[39]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요 15:26),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요 3:5),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임을 보증하신다.(롬 8:16,17) 창조 시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선포된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처럼(창 1: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성령에 의해서 실현되고 체험된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또한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것이다(요 1:16).[40]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말씀을 선택할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신다.[41]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임재인 것이다.[42]

누가는 성령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임하셨음을 강조하고(눅 3:21-22, 4:1)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음을 모범으로 제시한다.(눅 9:18; 28-29; 11:1).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16:7).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고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24:46-49, 행 1:8).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고,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묘사한다.(행 2:16-21, 요엘 2:28-32). 즉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이 사건은 드디어 이 땅에 종말, 즉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

39) 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101.
40) Ibid., 102.
41) Richard J. Foster, Dallas Willard, 성영 텐, 이동원, 이철신, 홍정길, 강준민 공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125.
42) Ibid., 95.

는 것이라는 말이다. 성경은 그 때가 바로 추수할 때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신다(사 49:8, 사 63:4, 고후 6:2).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의 일임을 기억해야한다. 조엘 비키(Joel R. Beeke)는 존 낙스가 1559년 스코틀랜드에서 경험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인용한다 "하나님이 신자의 수를 너무나 더하신 나머지 마치 구름에서 빗방울 대신 사람들이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43] 성령은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로이드존즈는 무디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했던 고백을 이렇게 말한다. "똑같은 설교였는데 불구하고 같은 설교가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었다."[44] 우리의 모든 사역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귀신이 쫓겨 가고 병든 자가 일어난다. 즉 성령이 역사하실 때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구하는 것과 깊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눅 11:13). 결국 주기도문의 응답으로 누가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최고의 응답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45]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먼저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다. [46] 개인의 삶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야 죄와 정욕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펼쳐진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능력가운데 실현되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

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심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

---

43) Joel R. Beeke, Brian G. Najapfour, *고전에서 배우는 기도특강 (Taking Hold of God)*, 269.
44) Lloyd-Jones,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 262.
45) 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117.
46) Ibid., 228.

을 내어 쫓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실 때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입하고, 확장해 가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47]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복음과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영적인 나라인 것이다.[48]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서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였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셨다.[49]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이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ευαγγελισασθαι)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씀하셨다(눅 4:18, 눅 7:22). 또한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할 때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ευαγγελισασθαι)한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셨다(눅 4:43). 그래서 예수님은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ευαγγελιζω)(눅 8:1). 그리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에 그들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였다(ευαγγελιζω)[50](눅 9:6).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파송하신다(마 28:18-20, 막 16:15, 눅 24:46-48, 행 1:8).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구원에 있다.[51] 이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믿고 거듭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을 때이다(롬 10:14). 바울은 명백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다(롬 10:17). 영국청교도의 아버지 윌리암 퍼킨스

---

47) 김남준, *깊이 읽는 주기도문*, 173.
48) Ibid.
49) 김세윤, 김회권, 정현구 공저, *하나님나라의 복음* (새물결플러스, 2013), 259.
50) 누가복음에는 복음을 전하다는 의미의 동사형 단어인 ευαγγελιζω의 단어의 변형들이 8번 나온다(눅 1:19; 2:10; 4:18; 4:43; 7:22; 8:1; 9:6; 20:1). 아울러 누가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적인 용례로 사용하고 있다(행8:4; 8:12; 10:36, 11:20; 14:7; 14:15; 14:21; 16:10; 21:8).
51) Geerhardus Vos, *하나님의 나라*, 50-72.

(William Perkins)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는 유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미치고,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듣는데서 나오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원칙이라고 말한다.[52] 성령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증거 하신다(고전 2:2).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고전 1:21).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할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바울도 자신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부탁을 한다(엡 6:19-20, 골 4:2-3). 스코틀랜드의 순교자인 월터스미스(Walter Smith)가 스코틀랜드 남서부에서 말한 기도회의 지침을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곧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 모두의 의무다. (중략) 주님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능력으로 전파되어 그리스도 없이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캄캄한 멸망의 어둠속에 살아가야하는 가련한 이교도의 세계를 밝히기를 구하고 기도할 것이다.[53]

둘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고 모으시지만 동시에 초청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예, 마5장-7장) 하나님 나라는 초청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통치아래 굴복할 때에 굴복할 때에 임하는 것이다.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는 하나님나라의 본질은 의에 있다고 말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용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54] 그런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법정적인 의임과 동시에 의롭게 된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이기도 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55]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

52) Joel R. Beeke, Brian G. Najapfour, *고전에서 배우는 기도특강*, 270.
53) Ibid., 266.
54) Geerhardus Vos, *하나님의 나라*, 79.
55) 김세윤, ***칭의와 성화***, (서울: 두란노, 2013), 163.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실제적인 의를 이루신다(롬 8:3).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였다(마 7:21).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삭개오가 맘몬의 우상을 버리고 율법대로 사랑의 법을 실천할 때에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씀하신다.(눅 19:9). 결국 칭의는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성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율법적, 도덕적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사역으로 가능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정욕을 바로잡아 주는 성령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빚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56]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διδασκων)(눅 4:31)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διδασκων)(마 4:23)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부름 받는다(마 28:19-20).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한다. 윌리엄 퍼킨스는 *주기도문 강해*에서 "지식이 없는 사람과 선한 안내자 선생이 없는 자를 보거든, 혹은 가르칠 줄 모르는 자가 회중 가운데 서있는 모습을 보거든 애통해야한다.(중략)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할 때다"[57] 라고 말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말씀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셋째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치유사역과 축귀사역이다.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즉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예수님의 축사와 치유사역에 나타난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치유가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를 입증해준다고 말씀하신다(눅 11:14-20). 복음서에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치유의 기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마 4:23-25; 11:4-5, 막 5:21-34; 6:12-13, 눅

56)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기도*, 163.
57) Joel R. Beeke, Brian G. Najapfour, *고전에서 배우는 기도특강*, 270에서 재인용.

4:14-41).[58]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실행함을 보여주기 위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 사건을 부각시킨다.[59] 또한 안식일에 치유하심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담의 타락으로 고장난 온 세상을 치유하여 첫 창조의 심히 좋은 상태를 다시 한 번 실현하는 것임을 보여준다.[60]

계시록에서 요한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유하는 곳으로 묘사한다. 그곳은 더 이상 아픈 곳도 죽는 일도 상처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이다(계 22:1-5).[61] 그 나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처한 아담적인 실존은 곧 사단의 나라 즉 통치 아래 있는 것이요 그 나라의 특징은 결핍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그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풍요로움과 배부름에 있음을 말씀하신다.[62]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치유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결핍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충만함에 참여케 하신다. 그리함으로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신다. 톰 라이트는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치유되어 온 피조물이 마침내 그 노래에 동참할 때 완전하게 도래하게 된다고 하였다.[63]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치유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 드려진 최초의 기도들의 대부분은 질병의 치유와 귀신을 내쫓음과 연관되어 있다(고후 2:8-10, 행 3:6, 막 9:38-40; 16:7).[64] 교회가 병든 자 연약한 자 귀신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치유가 일어난다. 예수님도 주로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치유의 공동체로서 서로 기도할 것을 명령받는다(약 5:16).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한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맛보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58) John Koenig, *신약성경의 기도*, 189.
59) 김세윤, 김회권, 정현구 공저, *하나님나라의 복음*, 235.
60) Ibid. 236.
61) John Koenig, *신약성경의 기도*, 190.
62)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121.
63) N. T. Wright,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 44.
64) John Koenig, *신약성경의 기도*, 191.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음으로서 이 땅에 펼쳐져 간다. 그런 면에서 주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첫째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구하는 기도요. 둘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들린 자가 자유케 되길 기도하라는 명령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의 순서와 원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가는 역사를 보면 순서가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이 먼저 성령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 역사상 나타나는 부흥의 전형은 바로 기도-부흥-선교의 순서이다.[65]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단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만이 아니라 선교적 종말론적인 사건인 것이다.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으며 그 결과로 당일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66] 여기서 한국교회가 침체해 가는 이 시대에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할 두 가지 기도의 기둥을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부흥과 각성을 위한 기도이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여야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각 사람 안에 날마다 새롭게 전파되어야한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충만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의 열정이 타올라야한다. 아울러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신자들안에 죄와 불순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도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한다. 또한 성령의 임재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 받고 귀신이 쫓겨 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부흥이 일어나야한다. 먼저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도록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한다.

둘째는 이렇게 각성과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지상명령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한다. 만일 부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흥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67]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모라

65) 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28.
66) Ibid.

비안의 경건주의 운동, 미국의 대각성, 한국의 평양대부흥 운동은 모두 말씀의 각성과 더불어 전도 및 선교운동으로 연결된다. 그들이 간절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케 하셨으며 그것은 다시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나아가는 선교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68] 오늘날 전도와 선교의 동력을 상실해가는 한국교회가 주기도에 근거한 기도운동을 펼쳐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칼빈은 종교개혁시대에 나라가 임하소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계 각지로부터 자기 앞으로 모으시도록, 교회와 교인의 수효를 늘리시도록, 교회에 각종 선물을 주시도록, 교회 사이에 바른 질서를 확립하시도록, 그러나 순수한 교리와 경건의 원수들을 모두 타도하시도록, 그들의 계획과 노력을 분쇄하시도록, 이런 일들을 매일 기원해야한다"[69]

17세기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주기도문에 대한 문답 '둘째 기원(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다.

>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 자신과 전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권세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죄의 나라 즉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유대인이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한다. (중략) 아직 죄 중에 있는 자들을 회개시키시고 이미 회개한 자들을 바로 세우고 위로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께서 현세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도 그로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권세의 나라를 이루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온 세계에서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한다.[70]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본질을 이해하고 그 시대와 환경과 여건에 맞

---

67) David Bryant, *영적각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 합주회 (How Christians can Join together in Concerts of Prayer: for spiritual awakening and world evangelization)* 안진원 역(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1), 53.
68) Timothy K. Beougher, Lyle W. Dorsett, *1995년 휘튼대학 부흥이야기 (Accounts of a Campus Revival)* 백금산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4), 63-74.
6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중)*, 479.
70) 김의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137.

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역이 일어나는 현장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제 3 절 우리 청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우리 청원으로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당신 청원이 주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것이라면 뒤의 우리 청원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이다.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야할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코니그(John Koenig)는 마르쿠스(Joel Marcus)는 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다.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 일상생활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으로 강력하게 쇄도해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것이다."[71] 우리 청원은 바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법, 즉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주기도문 첫 부분인 당신 청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도래하고 확장되길 기도해야함을 알았다면, 우리 청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보존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통치아래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셨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내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

1. 일용할 양식: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면 그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필요에 미쳐야한다. 경제적인 삶의 영역에 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통치가 경험되어야한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 된 성도들의 매일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신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구약의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

71) John Koenig, *신약성경의 기도*, 90.

>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출 16:4)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셔서 그의 백성을 먹이신 분이시다. 결국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는 것이다.[72] 부모의 공급을 받는 자녀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며 부모에게 한 달 치를 미리 요청하지 않는다. 그저 매일 매일 필요를 구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청원은 하나님이 자녀의 일생의 필요를 공급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불신앙으로 염려하지 말고(마 6:25-34). 필요한 것을 기도로 아뢰라는 것이다.(빌 4:6).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은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경은 오히려 그분의 통치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풍성한 공급을 맛본다고 말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그래서 바울은 부자들을 향한 권면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한다(딤전 6:17).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난해야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부귀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그런 면에서 부귀가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진다고 주장한다.[73]

그러나 바울은 다만 그들에게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나눠주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다(딤전 6:17-18).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신다.(마 6:20-24).

---

72) Michael J. Wilkins *마태복음*, NIV적용주석, 채천석 역(서울:솔로몬출판사 2009), 313 .
73) Foster, Willard, 탠, 이동원, 이철신, 홍정길, 강준민 공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 96.

이 말씀은 기독교 공동체는 가난해야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되, 결코 맘몬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며, 결정권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공동체로서 살아가야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한다. "주님 우리는 평생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그날의 필요와 염려를 기도로 주께 맡기게 하소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 죄용서: 사랑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이 매일 매일 경험해야할 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사 59:2). 그러나 하나님의 죄용서는 그 막힌 것을 뚫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통치에 참여하게 한다. 톰 라이트는 맨발로 달려 나가 패역한 아들을 용서하며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다. "죄용서는 새로운 출애굽이고 진정한 포로귀환이며, 예언의 성취이고, 위대한 해방이다. 이것은 우리 눈부신 하나님의 수치스러운 강림이다."[74]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네 죄 사함 받았다고 하시고 그 이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 땅의 삶의 치유와 생명은 바로 이 죄용서의 축복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말해준다(눅 5:20-24).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통치 가운데 거하려면 언제나 죄 사함의 축복을 경험해야한다.

그런데 그러한 용서를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태도이다.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맏아들은 그 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 동생을 받아들이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동생

74) N. T. Wright, *주기도와 하나님나라*, 75.

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린다(눅 15:28-30). 맏아들이 동생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75] 아울러 동생 역시 형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은총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한다. 결국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행동은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가로막는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가 용서하지 않으려는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믿지 않아. 죄 용서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존재기반을 부정하는 것이다.[76]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해야할 이유를 일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종의 비유로 말씀하신다(마 18:23-35).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일만 달란트에 해당된다. 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일백 데나리온의 작은 빚이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면, 지금 죄용서의 은총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현재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결코 일백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죄용서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들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의 흘러감이자, 동시에 그들이 보여주어야 할 삶이요 윤리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용서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이다.[7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어서 이 용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윤리이다. 예수님은 일흔 번 씩 일곱 번이라고 용서해야할 것을 말씀하심으로서 마땅히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할 것을 강조하신다(마 18:21-22). 만일 예배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하신다. 용서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다(마 5:23-24).

---

75) John Koenig, *신약성경의 기도*, 100.
76) N. T. Wright, *주기도와 하나님나라*, 76.
77)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174.

바울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골 3:13)라고 말하며, 신자가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는 태도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라고 말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이자 동시에 늘 풍성한 사죄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할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한다. "주님 내게(우리에게) 상처주고 손해 입힌 그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어 날마다 하늘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3. 시험과 악한 자: (거룩한)소망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두 개의 기도 같지만 이 둘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한 개의 기도문이다. 여기의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πειρασμον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험(Test)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유혹(Temptation)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불순종의 길로 가게 하는 유혹을 의미한다.[78] 그리고 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του πονηρου으로서 남성, 단수, 소유격이며 악한 자 즉 사단을 가리킨다.[79] 결국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배후에는 악한 자 즉 사단이 있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졌다. 바로 그 유혹하는 자가 엣 벰이라 하는 마귀로서 그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의 지배 아래로 끌어오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이 기도는 두 가지를 알려준다. 첫째는 신자는 이 땅에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

78)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178.
79) 이 헬라어 형용사는 남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어서, 많은 영어 성경들과 한글 성경들이 '악한 자'가 아니라 '악'으로 번역한다.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한 이 표현은 '악'과 '악한 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 주는데, 결국 '악'의 근원인 '악한 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며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그 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늘 보존되어야한다. 둘째로 이를 위해서 교회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아래 있음을 전제한다. 코니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폭력적인 사단의 반항을 불러온다."[80]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을 때에 사단이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그 공동체가 분노한 사단의 특별한 과녁이 된다.[81]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라고 경고한다. 주기도는 이러한 쉼 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함을 권면하는 것이다.(엡 6:18) 예수님은 실제로 마귀의 표적이 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서 그를 건져내신다(눅 22:31-32).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한다. "주님 세상과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궤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어 우리로 거룩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요약하면 우리 청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하는가를 보여준다. 그것은 첫째, 맘몬의 노예가 되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하는 것이며 둘째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할 것을 말하는 것이며 셋째는 사단의 유혹과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거룩한 소망의 공동체로 서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할 뿐 아니라,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 4 절 서언, 송영, 부언에 나타난 주기도의 특성

서언, 송영, 부언을 통해서 주기도에 어떤 부가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서 주기도에 근거한 기도사역의 자세를 가다듬고자 한다.

---

80) John Koenig, *신약성경의 기도*, 101. (마 11:2, 막 1:23-25; 5:1-13).
81) Ibid., 102.

1. 서언: 공동체의 기도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한다. 내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호칭한다. 주기도문 원문을 보면 ημων이 9번이나 사용된다. 이것은 이 기도문이 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한 기도임을 알게 해준다.[82] 3세기 초의 주교인 키프리안(Cyprianus Caecilius)은 "우리의 기도는 공적이고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각자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합니다."[83]라고 말한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기도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사명선언문적인 성격을 내포한다. 이 기도문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게 해주고, 바라는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며,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며, 이 모든 것을 기도를 앞세워 이루어 가야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84] 초대교회에서 주기도는 교회의 정식 회원(membership)만 드릴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입교인의 특권 중 하나로서, 그리스도인(Christians)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표시였다.[85]

그러므로 주기도는 교회의 구성원이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려야 할 기도다. 이렇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간 것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이다.[86]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합주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고 했다.[87] 우리는 이처럼 그의 나라를

---

82) 채영삼, *삶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서울: 이레서원, 2014), 36-37.
83) Cyprianus Caecilius, *치쁘리아누스: 도나뚜스에게; 가톨릭 교회 일치; 주의 기도문 Ad. Donatum. In cipit de ecclesiae catholicae unitate. De dominica oratione.* 이형우 역(왜관: 분도출판사, 1987), 119.
84) 최갑종, *예수님이 주신 기도*(서울: 이레서원, 2000), 77-82.
85) Joachim Jeremias, *The Prayer of Jesus* (Naperville,Ⅲ., A. R. Allenson, 1967), 83.
86) Cyprianus Caecilius, *치쁘리아누스: 도나뚜스에게; 가톨릭 교회 일치; 주의 기도문*, 121.
87) 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59.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해야한다. 주기도문은 성도들이 연합하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2. 송영: 최후 승리의 확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마무리된다. 이 종영은 이 주기도문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나라, 권세, 영광의 싸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주기도는 영적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즉, 통치가 속히 임하도록 올려드리는 기도이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서 그 결과 사탄의 나라가 빨리 종식되도록 드리는 기도이다.[88]

그런데 이 마지막 송영은 그 싸움의 최후 승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 다니엘서의 뜬 돌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거두고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이며(단 2:24-35),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할 것이다.(시22:27; 67:7; 98:3, 사45:22). 모든 권세가 주님 발아래 무릎 꿇고 사단이 그 발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다(빌 2:10, 히 10:23).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며(합 2:14),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계 16:17-21). 그리스도는 온 땅의 정복자로 이 땅에 있었던 제국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광범위한 전세계위의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89]

아울러 이 송영은 그 나라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 교회가 간절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길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으신다.[90] 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기길 기뻐하신다.[91] 반드시 교회의 기도는 응답되고 최후승리는 주어질 것이다.

---

88)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183.
89) 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79-85.
90) Dutch Sheets,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46.
91) 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124-129..

3. 부언: 끈질긴 기도의 자세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한다. 이것은 그 나라가 열혈당식으로 우리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초월에서 은혜로 오는 것임을 의미한다.[92]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필연성을 요청한다. 주기도는 하나님께 그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사역임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의 부언에서 주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인가를 비유로 가르치는데 멀리서 찾아온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강청함으로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다(눅 11:5-13). 그 나라를 위해서 인내로 끈질기게 기도해야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기 있게 찾아가서 강청하는 비유를 들려주며(눅 18:1-8)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아버지이시니 믿음을 가지고 낙담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신다.[93] 이러한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당신청원과 우리청원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당신청원의 핵심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는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청원의 핵심은 하나님나라에 편입된 그의 백성들의 삶과 보호를 위한 기도임을 고찰하였다. 그러므로 주기도의 커다란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나라에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공동체, 즉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아래서 있도록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공생애 사역의 모범은 단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져오셨는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역이기도 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주기도문의 핵심사상과 내용을 따르는 기도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사역을 주요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여기에 우리 청원의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92)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125-126.
93) 김형국,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179.

요소를 부가적으로 더하여 주기도문에 근거한 기도사역의 실제적인 적용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제 3 장
주기도와 기도사역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신학적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주기도문의 내용과 사상을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하는지를 숙고함으로서 기도사역의 근거로서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주기도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기도사역으로서 어떻게 신약성경과 교회사속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주기도가 어떻게 구약과 유대교의 기도를 전승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기도사역을 통해서 주기도를 실천하였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그 다음 교회사적으로 중세에서부터 오늘날 한국교회 평양대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주기도의 정신이 그 배후의 기도사역 속에 적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이런 작업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기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고찰하고 주기도의 가르침을 따른 기도의 사역이 교회에 맡겨진 역사적인 사명이란 사실을 밝혀내고자 한다.

제 1 절 유대주의(Judaism)의 전통에서 본 주기도

주기도는 예수님 당시 유대회당에서 매일 하루 세 번 드려지던 기도문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 이것은 주기도가 내용적으로 유대교의 기도를 전승하면서도 한편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주기도가 유대교의 기도를 내용적으로 전승할 뿐 아니라, 하루 세 번 올려드리는 유대교의 기도습관도 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기도는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유대교의 습관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주기도가 유대

교의 기도의 내용을 전승하였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유대교가 오랜 시간 지속해온 하루 세 번 기도습관, 즉 기도사역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1. 유대교의 하루 세 번 기도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회당과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다. 회당은 주전 586년 첫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함락 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 후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유대사회에서는 성전과 회당 두 개가 나란히 병행하여 존재하였고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되었다.[94]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아침제사와 저녁 제사 때 그리고 그 중간인 정오에 기도를 드렸고, 아울러 회당에서도 하루 세 번 기도를 드렸다.

가. 다니엘의 세 번 기도

먼저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해 유대교의 하루 세 번 기도가 단순한 습관의 차원을 넘어 기도사역의 한 부분이었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니엘은 포로 중에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단 6:10). 그 때에 다니엘이 하루 세 번 올려드린 기도의 근거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유추하게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기도내용이다. 다니엘 9장에서 사용한 다니엘의 기도의 용어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봉헌기도(왕상 8:46-53)의 모범에 의해서 형성된 전통으로부터 가져온 언어로 가득 차 있다.[95] 그러므로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의 솔로몬의 기도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왜 대적들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였는지, 그리고 왜 하필 대적들이 보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이 정해진 세 번의 시간에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다. 열왕기상의 본문은 이렇게 말한다:

> 47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48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94) William W. Simpson, *유대인의 예배와 기도 (Jewish prayer and worship)*류재영 역(서울: 예본출판사, 1999), 22.
95) W. Sibley Towner, *현대성서주석: 다니엘서 (Bible. O.T. Daniel-Commentaries)*신정균 역(서울: 장로교출판사, 2004), 198-199.

>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50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성전봉헌을 하며 올려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를 약속으로 삼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다. 아울러 그가 하루 세 번 정한 시간에 기도한 것은 그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아침제사 시간과 저녁제사 시간에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정오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저녁제사 드릴 즈음에 가브리엘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시간은 성전 제사시간과 연관되어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기도한 것을 보면(스 9:4-5), 포로기에 이미 하루 세 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니엘이 솔로몬의 기도를 약속으로 삼고, 평생토록 쉬지 않고 하루 세 번씩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바벨론의 총리 이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였음을 보여준다. 다니엘의 목숨 건 기도의 모범과 사자 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얻은 여호와 신앙의 보증(단 6:25-27)은 당시 오랜 포로생활로 절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고, 포로 귀환을 위한 기도를 결집하는 기도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포로기의 이러한 기도의 흔적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사62:6-7, 렘 29:10-14; 33:3-9, 겔36:37.) 특별히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귀환할 것을 예언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거듭 예언하고 있다(렘 29:10-14). 이사야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로 쉬지 않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고 말한다(사 62:6-7).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만의 귀환은 그 배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루 세 번씩 올려드렸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쉼 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96] 유대교의 하루 세 번 기도는

96)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기도*, 49.

이렇게 하나님나라를 위한 기도사역의 요소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예수 시대의 기도 관습

이러한 하루 세 번의 기도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되고 있었음을 신약성경에 나타난 유대교의 기도시간의 언급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마 27:45,46; 행 2:5; 행 3:1; 행 10:9, 30)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세 번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유대교 안에서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기도문이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쉐마, 카디쉬 그리고 테필라(18번 축복 기도문)이다. 그중에 유대인들이 하루 세 번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는 바로 테필라로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였다.[97] 이 기도는 내용이 길지만 주기도문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테필라 기도는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축복기도1-3)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두 번째 부분(축복기도 4-16)은 지혜와 회개, 용서 악으로부터 구함, 건강, 풍성한 열매 등 개인적인 간구와 특별히 흩어진 백성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국가적인 기도를 담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축복기도 17-19)은 감사기도이다.[98]

이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의 청원의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99] 특별히 본 논문이 주목 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측면에서 볼 때에 테필라 기도는 당시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하루 세 번씩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였음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은 그들이 쉼 없이 하루 세 번 올려드리는 성전기도 속에서 구원자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그 부친인 사가랴가 매일 제사에 제비 뽑혀 분향 드리는 시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분향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볼 때 분명하다.(눅 1:8-11). 계시록에도 성전에서 분향이 올려지는 그 시간에 그 향연(香煙/incense)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음을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

97)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19.
98) 손혜진, "주기도문의 유대적 배경" *그 말씀*(1997년 3월호), 52.
99) 조연주, "주기도문에 나타난 중보기도요소"(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2008), 21.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계 8:3-5).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시작은 수 백 년 동안 쉬지 않고 올려드린 그들의 하루 세 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유대기도의 완성으로서의 주기도문

신약성경은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전통적인 유대교회의 기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예수도 당시 일상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던 기도 패턴을 좇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요아킴 예레미아스(Joachim Jeremias)는 이에 대한 근거로서 우선 예수가 태어나고 양육 받은 가정이 당시 유대인의 경건한 가정이었음을 지적한다.[100] 또한 예수는 당시 유대주의 문화권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기도 관습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예수가 사용하는 신적 호칭에 근거하여(막 12:25, 마 11:25) 그의 일상적인 기도로 테필라를 사용하였을 것이라 주장한다.[101]

또한 이러한 기도 패턴은 초대교회 역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아스는 사도행전 3장1절, 10장 3절, 디다케 8장3절 등을 근거로 하여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규칙적인 기도시간을 지켜왔다고 말한다. 초대교회와 밀접한 연관 속에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은 끊임없이 항상 기도한다고 말하는데(롬 12:12, 골로새서 4:2), 이는 중단 없이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루 세 번의 기도시간을 규칙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볼 수 있다.[102]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는 이 하루 세 번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쉼 없이 올려드린 이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눅 1:1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시간도 그들의 아침제사가 드려지는 아침기도 시간에 달리시고 저녁 제사 시간 즉 저녁 기도시간에 운명하셨음을 기록한다(막 15:25; 33, 눅 23:44). 성령께서 강림하신 시간도 3시, 즉 아침 기도시간이었음을 연급한다(행 2:15).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어야하는지 주저할 때에 그 유대인의 정한 기도시간인 6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본다(행 10:9).[103] 이것

100) Joachim Jeremias, *The Prayer of Jesus*, 73.
101) Ibid., 75.
102) Ibid., 72.

은 유대교의 그 기도시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통로로 쓰셨음을 보여준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올려드리던 기도(테필라)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역시 주님께서 그들이 드렸던 이 기도를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적 전통 안에서 행하여지던 기도 관습이 하나의 예배적 전통으로 고착화 되는 것은 철저하게 경계하셨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의 연장선상에 서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관습과 규례로 굳어버린 기도 문화에 대해서는 형식과 내용적인 면에서 파괴적인 행보를 보이셨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루에 세 번씩 드리는 형태를 벗어버리고 홀로 기도할 때 몇 시간을, 심지어 밤을 지새우기까지 하신다.[104]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요아킴 예레미아스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기도는 유대 전통과는 불가결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적 전통(liturgical tradition)으로 고착화 되는 것을 철저하게 멀리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단편적인 근거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더 이상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교회(이방교회)에서는 테필라와 함께 드려졌던 쉐마 기도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의 기도 형태인데 그 역시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기도 생활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통에 따르는 정형화된 기도에 국한하지 않고, 중보기도 등 유대교 기도 관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형태를 보여주고 있다.[105]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유대 맥락 속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형식과 습관을 뛰어넘어 어떻게 실제적인 생명력 있는 기도사역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가르쳐주신 것이다. 테필라처럼 길게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아주 짧게 우리가 기도해야할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서 알려주심으로서 그 사상과 내용을 압축해주시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 기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간구해야할 것을 가르쳐주신 기도사역의 지침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볼 때에 주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랜 기도운동의 축을 이어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 바벨론에서의 귀환

---

103) Cyprianus Caecilius, *치쁘리아누스: 도나뚜스에게; 가톨릭 교회 일치; 주의 기도문*, 161.
104) Joachim Jeremias. *The Prayer of Jesus*, 75.
105) Ibid., 81.

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다 이러한 오랜 기도의 행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여선지자 안나는 과부가 된지 84년이 되었는데 그는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눅 2:36-38).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를 그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한다. 주기도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누룩처럼 번져서 결국 완성되길 바라는 기도운동을 위한 기도문인 것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도래하며 세상에서 번성해갈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제 2 절 성경에 나타난 기도사역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주기도속에 나타난 기도사역이 어떻게 실천되어왔는지 그 역사적인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초대교회에서 주기도가 실천된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유대교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예전적인 실천이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할 때 카디쉬와 테필림 기도문을 암송하고, 매일 하루 세 번 기도생활에서도 이 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초대교회는 주기도문을 하루 세 번 암송하며 동시에 예배 중에 암송하는 의식으로 정착시켰다. 기원후 10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열두 사도의 교훈)*는 하루 세 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기록한다.[106] 아울러 기도시간 역시 2세기 말, 3세기 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규범서인 *사도전승*에 의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하도록 되어 있었다.[107] 3세기 초 카르타고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도 3시, 6시, 9시의 기도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그 세 번의 기도를 삼위일체의 신비와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희생과 연결함으로 기도시간의 의미를 더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108]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유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 세 번 암송하는 것

106) 조기연, *기도의 정석: 초대교회에서 배우는 영성 깊은 기도*, 22.
107) Ibid., 23.
108) Cyprianus Caecilius, *치쁘리아누스: 도나뚜스에게; 가톨릭 교회 일치; 주의 기도문*, 160-161.

과 아울러 예배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주기도를 드려왔다.

그러나 앞에서 요아킴 예레미아스가 지적했듯이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기도가 이렇게 예전과 전통으로 굳어지는 것을 배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주기도문이 예배 의식적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주기도문을 중요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오히려 주기도문이 유대교회의 기도문처럼 하나의 전통과 습관으로 굳어지는 경향을 초래한다. 그래서 오늘날 주기도는 생각 없이 외우는 의미 없는 기도문으로 전락해 버렸다.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지적한대로 주기도는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처럼 하루 세 번 암송하는 차원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할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그 내용을 그대로 암송하는 것보다 주기도가 말하는 바 그 정신과 내용을 계승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드리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한다. 그리할 때에 주기도는 원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의도대로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기도의 정신과 가르침에 따른 역사적인 기도사역의 자취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도들은 그러한 기도사역을 어떻게 계승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예수님의 기도는 유대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시간은 유대인들의 하루 세 번의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새벽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막 1:35). 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며(마 4:2, 눅 4:2),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눅 6:12).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에도 밤새 기도하러 가신다(요 6:15). 주님의 기도는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 유대교의 형식적인 전통을 뛰어넘는다.[109]

예수께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의 기초가 된다(막 1:21-39). 특히 누가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하였음을 강조한다(눅 9:16; 18; 28-29; 10:21-22; 11:1).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자신

109) Joachim Jeremias, *The Prayer of Jesus*, 75.

이 보냄 받은 목적인 전도를 잊지 않으셨고(눅 4:42-44, 막 1:35-39),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조직을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시고(눅 6:12)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고(막 9:29), 기도를 통해서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하는 유혹을 이기며(요 6:15),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외면하고자 하는 두려움과 유혹을 이기고 결국 그 길을 가신다(마 26:36-46, 막 14:32-42, 눅 22:39-46). 십자가상에서 조차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신다(눅 23:34). 그리하여 결국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기도의 생애요 기도사역의 모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맥락도 친히 기도로 본을 보이시는 모범 속에서 나온 반응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시며 기도를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다(마 6:5-6). 빗됨의 관계를 뛰어넘어 간청하는 끈기 있는 기도를 드려야할 것을 가르치신다(눅 11:6-8). 인자가 올 때까지 낙망하지 말고 기도로 그 나라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할 것을 과부의 강청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신다(눅 18:1-8).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이 필요함을 말씀하시고(막 9:29), 십자가 결전을 앞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신다(마 26:41, 막 14:38, 눅 22:40; 46). 특별히 거대한 영적인 전쟁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기도로 이 전쟁을 이겨내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세 명의 제자를 가까이 두셔서 그 모본을 보여주신다(마 26:36-37, 막 14:32-33).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다(눅 24:49, 행 1:4).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서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음을 가르치신다(요 14:12-13).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로 사역하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볼 때에 주님의 기도는 유대교의 습관을 뛰어넘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도구이다. 주기도는 단순한 암송과 예배 순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통로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심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가르쳐주신 것이다.

2. 사도들의 기도 사역

그러면 사도들은 이러한 주기도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사도들 역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하루 세 번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 세 번의 유대기도시간외에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엡 6:18, 딤후 1:3). 사도들의 신앙과 영성생활은 유대주의의 제도화된 종교전통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3세기 초의 주교인 키프리안이 하루 세 번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하지만 동시에 새벽이나 밤을 포함하여 온종일 기도 속에서 살아야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는 유대관습을 뛰어넘어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다.[110]

더 나아가서 기도 내용에 있어서 그들은 위정자들, 정치의 안정, 그리고 복음전도,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였음을 보여준다(딤전 1:1-2, 빌 1:3-4, 엡 1:15-19).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주기도의 가르침의 적용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단지 주기도를 암송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따라서 기도로 사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사역을 앞세웠는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령이 강림하시어 새 시대가 도래 하는 사건을 열었던 오순절 사건은 바로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데서 비롯된다(행 1:14). 그들의 기도의 결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 하게 되고 그 결과 3천명이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행 2:14). 베드로와 요한은 제 구시 기도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앉은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한다. 기도에 연합하고, 기도시간을 준수하며, 기도에 마음을 들이는 그들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일로 5천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간다(행 4:5). 사도들이 복음전하는 것을 장로와 서기관들이 못하게 금지하고 협박하자 그들은 다시 모여서 기도한다(행 4:23-30). 그들은 핍박에 굴하지 않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구한다. 그 결과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110) Cyprianus Caecilius, *치쁘리아누스: 도나뚜스에게; 가톨릭 교회 일치; 주의 기도문*, 163.

(행 4:31).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무상통이 일어나고(행 4:32-37),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교회의 순결을 지켜내고(행 5:1-11),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행 5:12-16).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쉼 없이 가르치고 전도한다(행 5:17-42). 그리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핍박 속에서도 확장되어간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에 그들의 기도는 명백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정신과 일치한다. 사도들은 이러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사들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자 한다(행 6:4).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기도하고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옥문이 열린다.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 한다(행 12:5-24).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중심인물은 바울이다. 바울을 통해서 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로마에 까지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선교여행의 배후에 많은 기도가 있었음을 바울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기도요청을 통해서 짐작 할 수 있다.(살전 5:25, 롬 15:30-31, 엡 6:19-20, 골 4:2-3, 살전 5:25, 살후 3:1-2.)

>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엡 6:19-20)
>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골 4:2-3)
>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살후 3:1-2)

이러한 모든 기도의 요청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위한 기도요청이고 이러한 요청을 향한 쉼 없는 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해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는바대로 1,2,3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르게 된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하면서 교회가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것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임을 말한다(딤전 2:1-2).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막11:17).

실제로 교회의 기도는 선교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군사 넷씩 네 패에 맡겨서 베드로를 지킨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도와 옥문을 열어준다. 그 원인은 바로 교회의 기도에 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행 12:5)"[111]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일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마 18:19-20).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는 것이다. 결국 신약의 사도들은 이러한 교회의 기도 속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 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한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기도의 명령과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

제 3 절 교회사 속에 나타난 주요 기도운동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강력한 기도 사역의 가르침이다. 기도사역의 원천인 주기도문을 교회가 하나의 의식적인 암송이나 혹은 예배 순서로만 사용하는 안타까운 흐름이 있지만, 동시에 교회사를 돌아보면 이 주기도를 그 정신과 목적에 따라서 강력하게 사용한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교회사속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이 어떻게 주기도에 가르침을 따랐는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주요한 몇몇 기도운동을 살펴봄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주기도에 기초한 기도사역의 모델을 엿보고, 주기도가 하나님나라를 위한 기도사역으로 시행될 때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가하는 사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종교개혁과 루터(Martin Luther), 칼빈(John Calvin)의 기도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일어난 종교개혁만큼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없다. 이 종교개혁의 본질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 즉

111) 이동원, *중보기도 파티* (서울: 두란노, 2005), 111-114.

말씀운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패한 진리의 개혁은 단지 성경과 제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개혁에 까지 이른다. 닫힌 진리에 눈뜸은 곧 기도의 눈뜸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기도의 각성은 강력한 하나님나라의 역사로 이어짐을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인 루터와 칼빈에게서도 엿 볼 수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타락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면죄부 판매이다. 이 면죄부 판매는 주로 에베당, 병원, 교량건설 등에 사용되었고 거둔 기금 중 33-50퍼센트는 로마로 갔으며 그 중 일부는 교황에게 전해졌다. 결정적인 문제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위한 면죄부 판매였는데 이 사건이 루터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교황제의 권세가 뿌리 채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사건과 더불어 중세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112]

면죄부판매의 핵심에는 중세 교회의 기도의 타락이 있었다. 면죄부란 그 기금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교황과 사제가 기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준다는 것이다. 기도를 성직자의 전유물로 여기고 기도 응답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여기는 기도의 타락이 면죄부 사건을 가능케 한 것이다. 결국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서 촉발된 종교개혁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시 교회의 기도방식의 개혁을 주장하는데서 종교개혁이 발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 1년 전인 1516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하였고, 다음 해인 1517년에 사순절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하였으며, 1518년 12월에 또 다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하고, 1519년 평신도를 위한 주기도문 강해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520년 '십계명으로 기도하는 방법, 사도신경으로 기도하는 방법,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결국 이러한 루터의 일련의 행동은 바로 주기도가 중교개혁의 핵심 요소였음을 보여준다.[113]

또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루터는 주기도문은 가장(家長)인 아버지가 가족들과 매일아침과 저택 식탁에서 가르치기 쉬운 실제적인 기도의 형태로 보았다. 루터는 강조하기를 성도는 마땅히 매일 이 주기도문과 함께 침대에 들어가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침대에서 암송하면서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루터는 "주

112) Phillip Schaff, *교회사전집.6, 중세시대 보니파키우스 8세부터 루터까지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6)*이길상 역(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707-718.
113) Joel R. Beeke, Brian G. Najapfour, *고전에서 배우는 기도특강*, 15-17.

기도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순교자이다. 모든 사람들이 성가시게 하며, 잘못 활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탄식하였다. 루터는 주기도문을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실제적인 경건생활의 중심으로 삼았다. 114) 나자프르(Najapfour)는 루터에 대한 디에나 카(Deanna Carr)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다. "... 루터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의 세장을 열었다..."115) 루터의 친구였던 바이트 디트리히(Veit Dietrich)는 루터가 적어도 세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그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신실하고 경건했고, 때론 아버지와 때론 친구와 대화하듯 간구했다고 한다.116)

칼빈은 그의 역작인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그 역시 루터와 마찬가지로 중세교회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한다. 칼빈은 기도가 사제의 중보가 아닌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중세의 성자들의 중보기도에 대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비판한다.117) 또한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헤드릴 수 있다거나 주님은 경건한 행위자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식의 발상을 단호히 배격했다.118)

루터의 고전적인 편지에서처럼, 칼빈도 *기독교강요*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줄 한 줄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서 주기도의 가르침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119) 그는 주기도처럼 완전한 기도는 없으며 주기도가 기도의 표준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문자적으로는 다를지라도 그 기도하는 중심만큼은 주기도와 같아야한다고 말한다.120)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 역시 종교개혁의 큰 부분이 중세의 타락한 기도의 개혁에 있었고, 그 기도의 개혁의 바탕에 주기도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른 웨스트민스터회의가 작성한 공중예배모범 속에서 이러한 주기도문을 강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열방에 전파되고, 유대인의 회심과

---

114) 주도홍, *주기도문의 바른 사용을 위한 역사적 고찰과 제안*, 그말씀, 1997년 3월호.
115) Joel R. Beeke, Brian G. Najapfour, *고전에서 배우는 기도특강*, 18.
116)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기도*, 134.
11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중)*, 439-445.
118)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기도*, 148.
119) Ibid., 159.
120) Joel R. Beeke, Brian G. Najapfour, *고전에서 배우는 기도특강*, 59.

>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적그리스도의 파멸과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적그리스도 분파의 폭정과 투르크의 잔혹한 압제와 신성모독에서 해외교회를 건져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이 모든 개혁교회, 특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교회와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세계 각처의 식민지를 위하여 기도하라[121]

2.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기도 운동

가. 경건주의 운동

종교개혁이후 1세기반이 지나면서 교회는 종교개혁교회의 의도와 달리 점점 신조와 독단적 교리에만 집착하여 영적인 감정과 고결한 실제의 삶을 소홀히 하며 다시 교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때에 종교적인 열정과 내면적인 생활을 중시하고 진정한 회개와 경건한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 경건주의 운동의 주창자는 스페너(P.J. Spener)이고 그와 함께 프랑케(A.H. Francke), 진젠돌프(N.L. von Zinzendorf) 등이 이 운동의 주목받는 지도자들이다.[122] 이 운동은 17세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교회, 그리고 당시 신대륙이라 불린 북미와 19세기에 일어난 부흥운동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경건주의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 경건주의자들은 성경공부, 집회, 기도모임, 교회 밖 기도모임 등을 활성화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실제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여 나갔는데 특별히 기도 시간은 경건주의적인 삶의 중심이 되었다. 아무리 삶이 깨끗하고, 윤리·도덕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모임의 회원들에게서 "형제"라는 호칭을 받아야지만 경건주의자로 인정되었다.[123] 그만큼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member)들 간에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열정은 선교로 이어져 경건주의는 개인의 회심을 목표로 하는 복음전도와 개인의 영혼구원에 강조점을 두었다.[124]

나. 모라비안의 기도사역

---

121) Joel R. Beeke, Brian G. Najapfour, *고전에서 배우는 기도특강*, 277.
122) 조종익,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요인분석을 통한 교회성장전략"(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80.
123) 김문기, "경건주의와 목회적인 적용"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0집·제2호*, 1998, 16.
124) 차교범,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칼빈대학교 석사논문, 2007), 33.

이러한 경건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은 단체 중 하나가 모라비안 형제단으로, 니콜라스 진젠도르프가 로마 가톨릭교회와 보헤미아 국가교회의 박해를 피해 자신의 영지로 피난 온 1,485명의 모라비안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공동체를 말한다.[125] 그들의 공헌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 하루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를 이어갔는데 그 중보기도가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들의 쉼 없는 기도는 1727년 헤른후트에 강한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게 했고 그 영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선교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모라비아 선교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 현대 선교의 전초석을 마련하게 된다.[126] 그들은 1732년, 2명의 선교사를 서인도 제도에 파송하게 되는데 이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들로 기록에 남았다. 18세기에 이르러 226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게 되었고 이후 약 150년 동안 2,158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였다.[127] 당시 유명한 선교 단체인 덴마크-할레 선교부가 파송한 선교사 총 수가 60명에 불과했다는 것과 비교할 때 실로 엄청난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128]

그들의 강력한 기도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은 영국의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영국과 북미를 휩쓸고 간 18세기 대부흥의 서막이 된다. 특별히 존 웨슬리(John Wesley)는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그의 신학적인 기초는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형제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웨슬리와 경건주의자들의 만남은 한 여객선 위에서 이루어졌다. 1735년 10월14일, 미국 Geogia주에 선교사로 가는 Simmonds호 위에서 그는 모라비안 교도 26명을 만나게 된다. 당시 이 배는 항해 여정 중에 3번의 폭풍우와 1번의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12시간 동안 그 배를 집어 삼킬 듯이 휘몰아쳤다고 한다.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당시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은 배 한 쪽에서 저녁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몸을 가누지 못해 이리저리 넘어지며 세 찬 바람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였다. 같은 시간에 영국

---

125) 김명혁, "독일 경건주의 소고" *신학지남 1979 가을*, 38.
126) 진상천, "독일 경건주의 신학에 근거한 선교 동인과 사역 및 그 영향"(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7), 18.
127) 박영환, *네트워크 선교역사*(서울:도서출판 바울,2012), 132.
128) J. Herbert Kane, *기독교 세계 선교사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박광철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1981), 111-112.

교인들은 죽음의 공포에 비명을 지르며 떨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었고, 웨슬리는 이러한 현상을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57일 간의 항해가 끝난 후 웨슬리는 올레소프(Orglethorpe) 장군의 소개로 진젠도르프의 수제자이자 동역자인 슈팡겐베르그(August Gottlieb Spangenberg)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의 교제를 통해 신앙적인 부분에서 큰 충격과 깨달음을 받게 된다.[129] 영국으로 돌아간 웨슬리는 모라비안들을 찾아가서, 올더스케이트에서 열린 모라비안 기도회에 참석하였다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홀연히 회심하여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130] 웨슬리는 추후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 그들로부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교리, 마음의 신앙, 순회 설교 방식, 속회, 애찬회, 그리고 즉흥 설교와 즉흥 기도, 마음의 찬송 부르기 등을 배우게 되고 이를 토대로 감리교(Methodist)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131]

경건주의와 모라비안은 이렇게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감리교 부흥운동,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대부흥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미국의 대부흥운동은 우리나라의 평양대부흥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과 모라비안운동이 몰고 온 영적 파급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특별히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로 인한 성령의 임재와 이로 인한 공동체의 각성과 부흥 그리고 강력한 선교운동으로 이어진 결과들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사상과 목적이 기대하는 것을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라비안들은 우리가 주기도의 정신을 따라 기도사역에 헌신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3. 대각성 운동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도

미국의 대각성운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이다. 그는 1차 대각성운동의 진원지 중 하나였던 노샘프턴(Northampton)에서 사역 중에 부흥을 경험하고 이 부흥은 영국전역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다가 1740년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에 의해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조지 휫필드와 함께 대각성 운동에 참여한다.[132]

---

129) 진상천, "독일 경건주의 신학에 근거한 선교 동인과 사역 및 그 영향", 39-42.
130) 차교범,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41.
131) 진상천, "독일 경건주의 신학에 근거한 선교 동인과 사역 및 그 영향", 43-44.

조나단 에드워즈는 1737년 노샘프턴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노샘프턴과 인근 지역들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회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신실한 보고서'란 책을 출간한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부흥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이 책을 읽고 에드워즈와 서신을 교환하게면서 함께 기도합주회를 결성하게 된다.[133]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도합주회를 결성한 이유를 그의 논문 제목이 잘 보여준다. 1748년 그가 쓴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이 땅에서의 신앙부흥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특이하게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분명한 일치를 이루고 눈에 보이는 연합을 이루도록 촉진해주기 위한 겸비한 시도 [134]

그는 기도합주회라는 방법이 주는 큰 유익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해주는 촉진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게 되면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135] 그래서 그는 기도합주회의 주목적이 주기도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다. "이 기도합주회의 주된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구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할 의무에 좀 더 충실하자는 것이었다"[136] 조나단 에드워즈는 대각성은 주기도의 핵심내용인 주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오랜 시간의 끈기 있게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시는 은총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주기도문의 근거해서 미국 대각성운동을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정리하고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었다. 이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건초더미기도운동, 헐몬산 수련회등이 세계를 향한 선교운동으로 이어진 것을 볼 때에 그들의 기도운동이 하나님나라를 전파하는 주기도의 목적을 드러내는 기도로 그 정신이 이어져가고 있음을 보게 해준다.

---

132) David Martyn Lloyd-Jones,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Puritans: their origins and successors)*서문강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359-361.
133) 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16.
134) Lloyd-Jones,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378.
135) 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59-60.
136) Ibid., 65.

4.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과 기도사역

오늘날 한국교회의 급성장의 배후에는 한국교회의 오순절이라고 일컫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불길처럼 번져나간 이 평양대부흥운동이 있기까지 그 배후에 기도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 1907 평양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절정은 1월 14일부터 진행된 장대현교회의 집회에서 일어났다. 장대현교회에 들어섰을 때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압도당하듯 느꼈다. 약 이천 명 정도가 운집한 1월 14일 저녁 방위량 선교사(Rev. W. N. Blair)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몸에 병이 난 것과 같고, 교인 한 사람의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온 교회에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설교하였는데 온 교우들이 감동과 찔림을 받고 죄를 회개하였다.[137] 다음 날 주 강사였던 이길함 선교사(Gragam Lee)가 설교 후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고꾸라져 울었다. 전날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가만히 있던 김 장로는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전날 죄를 고백한 강조사를 미워했고 방위량 선교사도 미워했노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고 강조사와 김 장로를 부둥켜안고 심장이 터지듯 울부짖었다.[138] 온 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새벽 2시 까지 계속하였다. 다음날엔 길선주목사가 설교하였고 설교 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남은 자가 600명이었고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139] 집회는 그 날 밤으로 끝났지만 그 여파는 한반도 전역을 퍼져나갔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그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자기 집과 교회로 돌아갔다. 그들은 부흥의 불을 가지고 갔고 그들로 인해서 전국 거의 모든 장로교 교회에서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회개했다. 평양시 전체에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용서를 구하고 훔친 돈과 재산

137) 김영재, *한국교회사*(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148.
138) 홍기영,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 *한국선교신학회 선교신학 16권. 5.*
139) 김영재, *한국교회사*, 148.

을 돌려주었다.[140] 아울러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을 불러왔다. 부흥회에서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성도들은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였다. 1905년에 비해 1907년에 276.84퍼센트 성장하였다.[141] 방위량 선교사는 이 사건을 한국의 오순절이란 말로 표현하였다.[142]

나. 평양대부흥운동의 요인으로서의 기도 사역

(1) 하디의 원산 기도회

평양대부흥회의 시작은 원산에서 사역하던 캐나다출신 의료선교사 하디의 회개와 그가 인도한 기도회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선교하다 한국을 방문한 미스화이트(Miss M. C. White)를 강사로 모시고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하였는데 이 때 기도회를 인도하던 하디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였다. 그 후 스칸디나비아선교회 책임자인 프란손을 강사로 한주 간 집회를 하였는데 그 집회에서 하디는 자신이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 이후 복음에 냉담하던 청중들이 달라지고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다.[143] 이러한 선교사의 회개로 출발한 부흥운동은 원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도 성령체험을 사모하게 되었다. 하디는 계속해서 원산에서 대각성 집회를 인도하였고 원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평양선교사들이 1906년 하디를 사경회 강사로 초청하고 8일간의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가졌다. 이것이 평양대부흥의 전조가 된 것이다.[144]

(2) 선교사들의 정오기도회

하디 선교사로 인해 부흥의 열풍이 확산되던 1906년 늦은 여름부터 수개월 동안 사람들이 모여 더 큰 은혜와 부흥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또한 뉴욕에서

---

140) David M. Howard, *학생운동과 세계 복음화 (Student Power in World Evangelism)*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0) 300-301.
141) 홍기영,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 *한국선교신학회 선교신학 16권.* 5.
142) William Blair, Bruce Hunt,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 (Korean pentecost)*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85.
143) 김영재, *한국교회사*, 148.
144) 홍기영, "한국교회부흥운동의 역사" *한국선교신학회 선교신학 16권. 3.*

한국을 시찰하러 온 존슨목사를 통해서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운동에 관한 보고를 듣고, 선교사들의 마음에 조선 땅에도 이러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는 열망이 가득해졌다.[145] 마펫(S.A.Moffett) 선교사는 "1906년 가을, 기도의 영이 선교사들에게 임한 것이다. 그것은 다가오는 겨울 사경회에 더 깊고 풍요로운 축복을 내려 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고 말한다.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들은 이에 실망하지 않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곳 조선 땅에서도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다.[146]

특히 평양지역 선교사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앞으로 있을 각종 사경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해 선교사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갖던 친목 모임도 중단하고 사경회를 위해 정오에 연합 기도회를 열었다.[147] 이렇게 시작된 정오 기도모임은 1월 2일부터 시작되어 2주간의 평안남도남자도사경회 기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이 기도모임의 특이한 점은 특별히 기도회 인도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씩 기도모임 장소에 조용히 들어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다.[148] 박용규 교수는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시대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기도회는 원산에서 발흥했던 부흥운동을 평양대부흥운동으로 저변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근·현대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대부흥운동의 배후에는 바로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기도회가 있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3) 길선주의 새벽기도회

1906년 평양 중앙교회의 길선주 목사는 평양의 신도들에게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것을 느끼고 자기 교회의 박치록 장로와 매일 새벽에 기도를 시작한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새벽 4시에 기도하기를 두 달을 계속하였는데 이 사실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기도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어났다. 결국 새벽 4시 반에 종을 치기 시작했고 첫날 종이 울렸을 때 4-5백 명 이삼일 후에는 6-7백 명의 교인들이

145) 김영재, *한국교회사*, 145.
146)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201-202.
147) Ibid., 216-217.
148) Ibid., 217-218.

모여들었다.[149]

새벽마다 길선주목사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며 부흥을 사모하였다. 이러한 새벽기도회중에 이미 성도들이 통회하기 시작하였고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 가득하기 시작하였다. 길선주목사로 발미암아 시작된 새벽기도회는 한국교회 고유의 독특한 기도형태로 정착되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례없는 성장을 가져왔다.

평양대부흥은 17세기 말엽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영국 웨슬리의 부흥운동 미국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 그리고 2,3차 대각성운동에 걸쳐 일어난 부흥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부흥이다.[150] 그리고 다른 부흥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배우에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사역에 있었음을 보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그들은 성령을 구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 것이다.

5. 한국교회 기도의 침체와 그 원인

평양대부흥운동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교세가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151] 더 나아가 성령의 부흥은 백만구령운동이라는 전도운동으로 연결되었다.[152] 또한 길선주, 김익두, 이용도목사를 중심으로 평양대부흥운동의 정신을 잇는 부흥운동이 이어지고, 고난과 핍박 그리고 가난의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불길은 타올라 한국교회는 단기간에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성장을 이룩하고 기독교인구 천만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면서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고 한국사회 속에서 점차로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배후에 기도의 부흥이 있었다면, 한국교회의 쇠락의 배후에는 기도의 침체가 있다. 찾는 이가 없어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산기도, 금요철야가 사라지고, 새벽기도의 인원도 줄어들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 기도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국교회가 참된 부흥을 가져온 주기도의 정

149) 김영재, *한국교회사*, 147.
150) Ibid., 151.
151) 김승욱,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기도부흥운동과 교회갱신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순복음대학원대학교, 2012), 62.
152) 이덕주, *한국교회이야기*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09), 154.

신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세의 타락의 배후에 기도의 타락이 있었듯이, 어느덧 한국교회의 기도가 기복적이고 세속적이며 개인주의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목협 '2012 한국인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38.8 퍼센트), 구원과 영생을 위해(31.6 퍼센트)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18.5 퍼센트) 순으로 나온다. 신앙생활의 이유를 보면 기도생활 역시 기복적이며 개인주의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지만 기도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도구이다. 과거 부흥의 시기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성도들의 가슴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불타올랐다. 그러나 오늘날 기도하는 한국성도들의 가슴엔 세상의 꿈과 소원이 불타오른다. 과거의 성도들의 가슴엔 대한민국이 주의 나라가 되고 사람들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꿈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선진국이 되는 꿈으로 가득차 있다. 1970년, 80년대 대학생선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김준곤 목사의 가슴에 불타오르던 민족복음화의 꿈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꿈을 알려주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리도 내 몸 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으레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김준곤 목사의 시, 민족복음화의 꿈)[153]

한국교회 기도의 침체의 원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잃어버린 데 있다. 기복적으로 변질된 기도의 열기는 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서 식어지고, 신앙의 열정도 헌신의 삶도 식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어진 기도의 열기를 다시 일으키려면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본질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배워야한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림으로서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슴에 타오르게 하고, 간절하게 끈기 있게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해야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러한 소망을 품고 어떻게 교회 내에서 주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기도사역을 시작할 것인가를 살펴봄으로 실천의 한걸음을 떼어보려고 한다.

---

153) 한국대학생선교회 웹사이트. Online: http://kccc.org/?Code=A00010&type=html

제 4 장
더사랑의교회의 기도사역의 시작과 열매

지금까지 주기도의 내용과 사상을 근거로 하는 기도사역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서 살펴보고, 중세에서부터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기도사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그 결과가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얼마나 폭발적인 것이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도사역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본장에서는 더사랑의교회의 기도사역의 경험을 근거로, 기도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기도사역의 토대를 마련하고 교회적인 분위기를 마련해야하는가를 살펴보고, 기도사역의 전체적인 개괄과 기도사역의 시행이 교회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였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더 나아가 교회의 건축과 이전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더사랑의교회가 목회철학을 재정립하면서 그 목회철학 속에서 기도사역을 어떻게 재정립하여 주기도의 정신에 입각한 기도사역을 전개해나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기도사역의 태동과 열매

1. 기도사역을 하게 된 배경

가. 수지지역의 종교적인 뿌리와 영적인 정서

수지구는 용인시의 북서구에 위치한 구로서 1990년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1994년 말부터 1996년 3월 까지 수지 1지구를, 1999년 까지 수지2지구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서울, 분당, 수원 등 주변 대도시와의 교통이 편리해 용인시에서는 가장 개발된 지역이며 용인시 거주인구의 약 3분의 1인,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154]

하지만 수지는 불교와 유교의 오랜 전통이 토착화된 지역이다. 특히 교회주변에는 유교의 사당이 있고 조광조 묘가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가 위치했던 상현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 심곡마을인데 지금도 심곡마을, 또는 줄여서 서원말이라고 부른다. 이는 정암 조광조 선생을 모신 심곡서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심곡서원은 흥성대원군의 강압적인 사원철폐령이 시행될 때에도 존속된 몇 안 되는 서원 중 하나이다.[155] 그 때문인지 이 마을에는 유교를 숭상하는 원주민들이 서당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수지는 광교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유교 이전에 불교의 뿌리가 훨씬 깊었던 곳이다. 문헌에 따르면 본래 광교산의 명칭은 광악산(光嶽山)이었는데 928년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평정한 뒤 이 산의 행궁에 머물면서 군사들을 위로하고 있을 때 산 정상에서 광채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부처가 가르침을 내리는 산"이라 하여 기운이 하늘에 뻗쳐 이를 부처의 혼령이라고 해서 불교를 취하여 '광교(光敎)'[156]라고 산 이름을 짓게 된 것이라고 한다.[157] 그래서 지금도 광교산에는 많은 사찰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어서 그런지 수지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지역적 양상을 보인다. 신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무당 점술집이 있고 길거리에는 점술, 또는 무속을 홍보하는 광고 현수막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개척 당시 목회자들로부터 들었던 수지의 영적인 정서는 목회하기에 강퍅한 상황이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여러 목회자들이 시험에 넘어져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았다.

나. 지역적인 세대적인 특성

더사랑의교회는 2003년 5월에 사랑의교회에서 8년간 부교역자생활을 한 이인호 목사가 수지사랑의교회란 이름으로 용인 수지에 창립하였다.[158] 수지지역은 새로운 아파트건설로 입주한 이주민이 대부분인 신도시이지만, 다른 신도시처럼 계획적으로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난개발로 이루어진 신도시였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154) 위키백과, "수지구", Online: https://ko.wikipedia.org/wiki/수지구.
155)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2008.12.).
156) Ibid.
157) 더사랑의교회는 현재 '광교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158) 창립예배는 2003년 5월1일, 옥한흠 목사(사랑의교회)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으로 분당과 서울에 대한 열등의식이 많았다. 그래서 수지에 정착하기보다는 잠시 머물다가 이사 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따라서 이사를 와도 교회는 여전히 이전에 다니던 서울과 분당지역으로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2003년 당시 교회 전도팀이 수지의 아파트 5610세대를 방문전도하며 교패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15.7퍼센트 천주교가 6.2퍼센트로 나왔다. 전도팀이 가까운 수원의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기독교 26.7퍼센트 천주교 6.1퍼센트와 비교하여 볼 때에 수지지역의 기독교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직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또한 조사한 교회 교패들을 분석한 결과 서울, 분당 등 수지외의 지역의 교회들, 특별히 대부분 대형교회들로 다니는 사람들이 전체의 40퍼센트 정도로 조사되었다.[159] 이로 보건대 당시 수지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서울, 분당에 대한 열등감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서, 교회조차 더 나은 지역에 위치한 대형교회들로 출석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개척당시에 수지에는 주로 30대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수지가 자연과 공기가 좋다는 이유와 대형평형의 아파트가 많아서 은퇴한 세대들이 이 지역을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고, 아울러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층들이 전세 값이 급등하여 수지로 이사를 오게 된 까닭이다. 그러다보니 교회의 구성원들도 30대에서 40대 초반과 60대 이상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아이도 어느 정도 자라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40-50대층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교회가 성장해도 중심적으로 일할 일군이 항상 부족했고, 이사를 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이사를 가는 성도들이 많았기에 교회가 성장해도 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환경이었다.

다. 수평이동 신자들의 기성교회에 대한 상처와 불신

당시에 등록한 성도들은 수지 신도시에 이사하여 교회를 옮긴 수평이동 신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수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상처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더사랑의교회가 있던 주변의 여러 교회들도 목회자의 성적인 불륜 문제

159) 2003-2004년 교회 내 전도부서인 사랑의전도단이 약 6개월 동안 아파트 방문 전도하며 조사한 것을 분석한 자료임.

와 재정적인 스캔들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이리저리 떠돌며 교회를 찾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렇게 성도들이 받은 상처와 실망은 쉬 가라앉지 않아서 교회중심부에 들어와서 헌신하기를 두려워하고 늘 주변을 겉돌았으며, 항상 목회자를 의심스러운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조금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비판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내면의 상처들로 인해서 서로를 포용하기보다는 작은 일에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잦았다.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렇게 상처입고 마음을 닫은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라. 교회 개척 초기의 급성장과 불안정한 상황

더사랑의교회는 개척초기부터 급성장하게 되어 창립 7개월만인 그 해말에 장년 출석 300명(한해 평균출석은 230명), 주일학교 출석 100명, 총 40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160] 급성장의 요인으로 첫째는 환경적으로 당시 수지의 상현지구, 성복지구, 신봉지구가 새로 개발되어 입주를 하고 있던 이유가 컸고, 둘째는 수지지역의 젊은 세대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타깃으로 주일학교 교육에 초점을 준 것이 주효했으며, 셋째는 사랑의교회의 건강한 브랜드 이미지 등이 교회성장의 발판이 된 것 같다.

하지만 앞서 말한 여러 요인들에서 본 것처럼 급작스럽게 모여든 성도들은 첫째로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상처로 인해 관망하려는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았고, 둘째로는 언젠가 이사를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셋째로는 훈련이 안된 미성숙한 신자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한 불안정한 상태였고, 크고 작은 다툼 원망 등이 일어날 때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흔들리는 매우 불안한 시기였다. 제자훈련 등 말씀양육에 전력을 쏟고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성숙한 평신도지도자가 생겨날 수 없었기에 당시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160) 수지사랑의교회(현 더사랑의교회) 주보(2004년1월4일). 창립 첫 해 12월28일 까지 등록한 인원은 328명.

마. 부교역자 시절의 중보기도사역의 경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한 본 연구자는 이미 사랑의교회에서 중보기도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의교회에서 3천명이 넘는 중보기도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사역을 펼쳤었다.[161] 그 결과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당시 건강이 안 좋던 옥한흠 담임목사도 회복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성도들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교회가 처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반드시 기도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할 평신도 기도사역자들을 훈련하여 세우는 일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았다.

2. 기도사역의 토대 형성

기도사역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는 했지만, 모여든 성도들 중 대다수는 기도훈련이 안된 상황이었다. 사랑의교회에서 기도사역에 헌신하던 성도들에 비교할 때에 기도에 훈련된 성도들이 너무나 적었다. 당장의 기도 자원도 부족하였지만, 기도사역의 필요성을 전체 성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기도사역을 펼치기 전에 먼저 기도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도들이 기도의 열정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어야했다. 그러한 고민은 새벽기도회의 부흥과 은혜로 자연스럽게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가. 새벽기도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독특한 유산중의 하나가 바로 길선주목사로부터 시작된 새벽기도회이다.[162] 더사랑의교회가 오늘에 있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새벽기도회의 은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수지지역의 많은 성도들은 주일에 분당이나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지만 새벽이나 주중에는 수지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야하는 상황이었

161) 이인호 목사는 사랑의교회에서 8년간 사역하였으며 그 기간 중 1998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중보기도 사역과 금요심야기도회, 수양관 영성훈련 및 주말교회 사역 등을 담당하였다.

162) 김영재, *한국교회사*, 146-147.

다. 그런 환경의 영향이었는지 더사랑의교회가 창립하고 새벽기도를 시작한 첫 주 부터 많은 성도들이 새벽기도회에 출석하였다. 한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새벽기도회에 출석하는 성도수가 70명을 넘어 80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주일 출석의 약 10퍼센트정도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인데 당시의 70-80명은 주일 출석의 약 50-60퍼센트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이러한 부흥은 등록성도들 외에 서울 분당으로 교회를 다니던 타 성도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새벽에 늘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이었기에 그들로 인해서 새벽기도회의 분위기는 더 충만해졌고, 이러한 새벽기도회의 열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더욱 깊어졌다. 또한 시간이 가면서 이 새벽기도회에서 은혜를 받은 타 성도들이 더사랑의교회의 등록신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후일 더사랑의교회의 기도의 일군들이 되었다. 결국 새벽기도회의 부흥이 자연스럽게 기도사역을 위한 토양이 되었다.

나. 특별새벽부흥회의 은혜

새벽기도회와 더불어 더사랑의교회의 중요한 기도훈련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바로 특별 새벽부흥회이다. 5월 창립 후 한 달 반 후인 6월 1차 전교인 특별 새벽부흥회를 진행하였고, 3개월 후인 9월에 2차 특별새벽부흥회를 하였다. 이 당시에는 중보기도와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강력한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후인 2004년 1월에 신년특별새벽부흥회를 하였고 그 후에 한 달 후인 2월부터 40일 특별 새벽부흥회를 진행하였다.[163] 새벽기도회의 부흥과 3차례에 걸친 특별 새벽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상황인지라 40일간의 특별새벽부흥회에 출석 성도의 60퍼센트(80%)인 약 230명 정도가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기도를 체질화하게 되면서 기도의 깊이가 한 단계 성장하는 특별한 집회가 되었다. 이렇게 특별 새벽부흥회를 통해서 더사랑의교회의 기도사역의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어갔다.[164] 그 이후로 지금까지 특별 새벽부흥회는 일 년에 두 차례 한 번에 2주간씩 봄가을로 13년째 지속되며 큰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

---

163) 수지사랑의교회(현 더사랑의교회) 주보 모음집(2003-2004년).
164) 1차 새벽부흥회는 6월16일부터 20일까지 요나서 강해로, 2차는 9월22일부터 26일까지 '영적 군사가 되라'라는 주제로, 3차는 2004년1월5일부터 10일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주제로, 4차는 2월8일부터 4월21일까지 40일간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다. 수요심야기도회

더사랑의교회의 중요한 합심기도의 장으로 오늘까지 자리 잡은 기도모임이 바로 수요예배 후에 이어지는 수요심야기도회이다. 보통 한국교회에는 금요심야기도회의 전통이 있으나 더사랑의교회에서는 금요일 저녁에 부부 및 직장인 소그룹모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소그룹(다락방)이 부흥하고 있었기에 금요일에 심야기도회를 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더사랑의교회에서는 수요예배를 수요심야기도회로 바꾸어 금요심야기도회를 대치하였다. 그 첫 시작은 창립첫해 9월부터 진행된 8주간의 수요심야기도회에서 비롯된다.[165] 수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하여 9시에 예배가 마치면 10시30분 까지 한 시간 반 동안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수요심야기도회는 새벽기도회와는 달리 합심하여 부르짖으며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서 성도들의 기도 능력이 배가 되는 장이 되었다.

3. 기도사역의 시작과 정착

가. 첫 번째 중보기도학교 개최

이렇게 창립한 첫해에 더사랑의교회는 새벽기도회, 특별새벽부흥회, 그리고 수요심야기도회에 이르기까지 기도에 전념하였고 그 결과 어느덧 기도사역의 터전이 마련되게 되었다. 그래서 2003년 9월 29-30일 양일간에 걸쳐서 1차 중보기도학교를 진행하였다.[166] 당시에 총 42명의 여자 성도들이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였는데 그들은 대부분 교회의 평신도지도자들로서 교회의 중심 일군들이었다.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42명중에 총 35명이 6개월간의 중보기도사역에 성실히 참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사역 시작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기도사역자들은 주일 중보기도사역과 주중 릴레이 중보기도사역에 헌신하게 되는데 당시 2부로 진행되던 주일예배를 위해서 1부에 8명, 2부에 15명이 주일 중보기도에 헌신하였다. 당시 예배당은 상가 4층에 있었고 주일에 밀

165) 수지사랑의교회(현 더사랑의교회) 주보(2003년9-10월).
166) 수지사랑의교회(현 더사랑의교회) 주보(2003년9월).

려오는 성도들로 인해서 장소는 비좁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핸드폰 소리 등으로 매우 혼잡스러워서 설교에 집중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다. 한편 교회 밖에서는 주차로 인해 1층에 있는 음식점과 많은 마찰을 빚으며 매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또한 주일학교공간의 부족으로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사역을 하였기에 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사역자들은 장년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와 안전을 위해서 매 주일 예배시간에 집중적으로 모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다. 성도들의 주중 릴레이 기도사역의 시작

또한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성도들 대부분은 주중에 릴레이 기도사역에 참여하였다. 당시 상가복도에 있던 창고를 개조하여 중보기도실로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기도 후 6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한 시간을 정하여 릴레이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하였다. 당시 교회에 대한 큰 부담감을 안고 있던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줄을 잇고 쉬지 않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라. 중보기도사역 통계(2003년-2014년 기준)

이렇게 시작되어진 중보기도사역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지속되었고, 지난 12년 동안(2014년 기준) 총 2,656명[167]이 중보기도의 릴레이를 이어오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표1> 연도별 중보기도 헌신자 숫자 및 헌신시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헌신자 숫자	35	122	198	260	246	280	257	243	248	235	248	284	2656
헌신 시간	960	2873	4560	5400	4833	5830	5335	4693	4480	4250	5400	5660	54274

167) 이 중에서 중복된 기도헌신자들이 꽤 있다. 이유는 다시금 기도사역에 지속적으로 헌신을 하기 때문이다.

4. 기도사역의 열매

이러한 기도사역으로 인하여 교회가 얻은 유익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더사랑의교회가 오늘에 모습에 이른 것은 성도들이 기도사역에 동역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교회가 기도사역을 통해서 얻은 유익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설교자의 담대한 말씀선포

성도들에 의해서 펼쳐지는 기도사역의 효과는 매주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가장 민감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사역이 시행되기 전에는 항상 예배시간에 영적인 방해를 받고 준비한 설교를 은혜롭게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기도사역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영적인 방해를 넉넉히 이기게 되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게 되었다. 특히 기도사역자들이 토요일에 따로 모여서 설교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기에 방해받지 않고 설교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168]

나. 감동적인 예배와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

아울러 기도사역 시행 후 예배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예배 전부터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대표 기도나 예배찬양, 성가대의 찬양 순서 등이 진행될 때에 눈물 흘리는 모습도 종종 나타나고, 설교 후 찬양과 기도시간에는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도사역으로 인하여 예배시간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났다.[169]

다. 성도들의 내면과 가정의 치유

기도 사역팀은 목회자와 교회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제출하는 기도제목을 가지고 쉼 없이 기도한다.

---

168)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는 주일 설교준비를 위한 기도 사역팀이 모이고 있다.
169) 지난 12년 동안 매주 주보에 실린 성도들의 간증을 참고 하였음.

<표2> 제출된 중보기도카드에 따른 유형분류[170]

구분	제출된 카드의 분야별 비율(%)				
	영적	진로	건강	경제	기타
일반카드	39	16.7	12.7	10.5	6.8
긴급카드	20.3	21.1	25.1	13	5.7
합계	29.65	18.9	18.9	11.75	6.25

<표2>에 의하면 영적인 문제 즉 가족의 구원과 영적인 각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았다(29.65퍼센트). 그 뒤로 건강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가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많았다.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 치유, 그리고 진로와 건강의 문 제등의 목회적 돌봄이 기도사역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 교회 내 기도모임의 부흥(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기도사역의 또 다른 효과는 이로 인해서 다른 기도모임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2014년 말까지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성도가 총 1,280명이다. 이로 인해서 교회 내 핵심멤버들은 기도사역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아울러 수요심야기도회와 새벽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다.

<표3> 새벽기도 연평균 출석인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72	87	95	106	115	121	130	137	143	149	158	164

170) 연도별 분야별 통계 비율은 대동소이하기에 2009년 사역의 통계를 예로 들었다. 일반카드와 긴급카드는 예배당 각층 출입구에 있는 중보기도요청함에 항시 비치되어 있으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중보기도요청함에 제출하면 중보기도임원이 수거하여 중보기도실에 비치한다. 또한 일 년에 한 차례씩 성도들이 작성한 기도카드를 기도제목별로 분류한다(영적, 진로, 건강, 경제, 기타 등). 자세한 사항은 5장의 주중릴레이중보기도사역을 참조.

<표4> 수요기도회 연평균 출석인원[17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35	155	161	168	171	181	140 (160)	120 (125)	195	235

<표3>과 <표4>를 보면 개척초기에는 성도 수에 비해서 많은 수가 새벽예배와 수요심야기도회에 참석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도수가 늘어난 것이 비해서는 출석률이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는 개척 초기처럼 담임목회자가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를 직접 인도하지 않으면서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 출석비율이 점차로 떨어지는 것이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누구보다 먼저 담임목사가 기도를 이끄는 일에 앞장서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단기간에 주일 출석인원은 늘어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성도들이 새벽과 수요기도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 배후에 중보기도학교를 통한 기도의 훈련이 그 역할을 감당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성도들은 본인이 속한 부서의 사역을 할 때에 기도를 우선시하며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락방 모임 등 각부서의 모임에서 예배전, 행사 전, 사역 전에 기도모임이 형성되었다. 일례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단기선교 등의 여름 사역이 시작되면 온 교우들이 교구별로 새벽예배 후에 6시부터 여름사역을 위해서 릴레이로 기도를 하고 이 기도모임은 각 교구의 교구장인 장로가 직접 인도를 한다.

마. 교회의 평안과 수적 성장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역의 중요한 유익중의 하나가 평안이다. 아사왕도 하나님만 구하기로 결단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결과 그

171) 수요 심야기도회는 2005년 3월16일(수)부터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기도회는 9시~10시 30분까지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 2011.10.5.(수)부터 수요여성예배가 오전에 생기면서 인원이 분산되었음. 2011, 2012년 괄호안의 숫자는 수요오전여성예배 인원의 숫자임. 광교에 입당한 후에 다시 수요심야기도회에 집중하면서 인원수가 차츰 회복되기 시작함.

나라가 강성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대하 14-15장). 이와 마찬가지로 더사랑의교회도 기도사역의 시행이후로 교회 내 갈등과 다툼이 두드러지게 사라지게 되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갈등은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교회를 향한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기도사역 시행 후 그러한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그 어떤 것도 교회의 평안을 흔들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도 뒤 돌아보면 지뢰밭 같은 길을 무사히 피해서 온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였고 첫해 평균출석이 230명이었는데 2014년인 평균출석이 2,500여명으로 10배 이상의 급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표5> 장년부 연도별 주일출석 통계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명)	230	520	780	899	987	1.094	1.173	1.235	1.295	1.402	2.245	2.546

사. 예배당 건축

더사랑의교회는 창립 10년이 되어가는 2012년 말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하게 되었다. 그 동안 월세건물에서 주일학교까지 2,000명이 넘는 인원이 불편을 감수하며 예배를 드려왔으나 교회의 성장으로 공간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때마침 교회 인근에 광교신도시가 형성되고 불과 교회와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종교 부지를 분양받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 건축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기도에 더욱 전념하였다. 건축을 위한 기도제목을 작성하고, 중보기도 사역자들과 함께 온 교우들이 5만 시간 릴레이기도에 돌입하였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도합주회를 결성하면서 지속적이면서 정기적인 기도모임의 유익은 항상 하나님나라를 기억하게 한다는데 있다고 한 것처럼[172] 이러한 기도 속에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였으며, 그러한 헌신의

172)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59.

부담이 지속되는 3-4년의 건축기간 동안에도 교회 내에는 그 어떤 갈등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해마다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갔다. 또한 건축을 진행하기 전 다른 교회에서는 건축위원들안에 마찰이 생기고 업자와의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겨 중도에 건축위원장을 바꾸는 등의 여러 사건들이 있었음을 듣고, 이러한 문제들을 중보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한 결과 건축을 섬긴 모든 섬김이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관계로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이 정직하고 순조롭게 건축의 전 과정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지면적 2,372제곱미터, 연면적 12,202.42제곱미터에 지하4층, 지상8층, 총 12층의 예배당을 건축하여 입당하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바로 배후에 성도들이 기도에 전력하였기 때문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주인이 되시어 교회를 이끌어주셨던 것이다.

이상의 유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교회가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사역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유명한 말이 사실이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놀라운 유익을 얻는다.

제 2 절 변화된 환경과 기도사역의 재정립

개척부터 10년간, 예배당을 건축할 때까지 더사랑의교회가 어떻게 기도사역을 시행해왔으며 그 기도사역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 이 사회의 급변으로 인해서 교회가 처한 환경도 아울러 변화되고, 교회에 유입되는 성도들의 성향도 변화된다. 또한 세상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대처해야하는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의 국면도 달라진다. 특별히 더사랑의교회는 예배당 건축과 더불어 수지에서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세대의 유입, 신도시 입주민들의 등록으로 인한 급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되고 새로운 도전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사랑의교회는 이러한 도전 앞에서 새로운 목회철학과 이에 따르는 새로운 기도의 사역의 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사랑의교회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며 기도사역을 재정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새로운 변화가 가져온 과제와 위기

광교신도시에 건축하고 입당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였다. <표5>에서 보듯이 입당 전 2012년 장년 평균출석이 1,402명이었는데 입당 후 2년 후인 2014년 장년 평균출석이 2,546명으로 1,100명이 2년 만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평이동으로 인한 성장이었고, 대부분의 새등록 교우들은 기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기신자들 이었다. 이러한 성장이 한편으로는 교회의 재정과 인력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주었다.

가. 기존신자와 새로운 신자간의 갈등요인이다.

기존성도들은 개척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헌신해온 성도들인 반면에 새로운 성도들은 이미 건축된 교회에서 누리고자하는 경향이 많았다. 물론 새로운 신자들 중에도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성도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건축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 예를 들면 예배 중에 헌금을 하지 않는 모습이나 불량한 예배 태도, 잦은 지각,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 같은 모습 등이 종종 연출되었다. 교회건물의 겉모습만 보고 찾아온 많은 새로운 방문자들 중에는 이렇게 신앙이 없는 형식적인 성도들이 많았고 이것은 기존신자들을 당황하게 했으며, 그들을 헌신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교회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나. 지역 간의 차이

교회 건축이전 예배당이 수지상현동에 있을 때에는 신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수지와 용인에 거주하는 성도들이었다. 그런데 비록 기존 위치와 1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행정구역이 수원시로 들어가 있는 광교신도시로 교회를 이전한 이후에는 등록신자의 90퍼센트가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수원시에 소속된 성도들이었고 따라서 교회 내 지역 간의 차이가 뚜렷해졌다.

<표6> 2015년 더사랑의교회 거주 지역별 성도분포

구분	시	구	인원(명)	비율(%)	광교(명)	비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16	9	80	6.6
		수지구	1694	48	239	19.8
		처인구	17	0.5		
		소계	2,027	57.5		
	성남시	분당구	44	1.2		
		기타(수정,중원)	14	0.4		
		소계	58	1.6		
	광주시		12	0.4		
	수원시	권선구	54	1.5		
		영통구	1076	30.5	888	73.6
		장안구	62	1.8		
		팔달구	113	3.2		
		소계	1,305	37		
	화성시		41	1.2		
	기타(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시흥,안산,안양,오산,의왕,파주)		28	0.8		
서울특별시			52	1.5		
인천광역시			7	0.2		
기타도(경상,충청)			7	0.2		
총 계			3,530	100	1,207	34.2

<표6>에서 보는 것처럼 90퍼센트에 육박하던 수지지역에 사는 성도 비율은 48퍼센트로 떨어졌고 반면 수원시 거주 성도비율은 37퍼센트로 뛰었다. 불과 3년 만에 지역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수지와 수원이 붙어 있지만 두 지역의 문화와 생활수준과 관심사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표7> 수지구 가구원 교육정도[173]

구분	구성비(%)
고졸	22.1
전문대졸	13.5
대졸	46.0
대학원이상	12.5
소계	약 94%

173) 시제9회 사회조사 결과표[용인](2014년12월16일)

<표8> 수원시 가구원 교육정도[174]

구분		가구분포(%)
교육정도	초졸 이하	8.1
	중졸	13.7
	고졸	39.3
	대졸이상	38.9

<표7>에서 보는 것처럼 수지구는 고학력자들의 분포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수원시가 고졸 이상이 80퍼센트, 대졸이상이 38.9퍼센트인 것에 비하여 수지구는 고졸 이상이 94퍼센트이고 전문대졸이상은 72퍼센트에 달한다. 이 두지역의 차이는 소득에서도 격차가 나타난다.

<표9> 수지구 월 평균소득 분포[175]

구분	구성비(%)
100-200만 미만	10.5
200-300만 미만	13.6
300-400만 미만	21.6
400-500만 미만	15.2
500-600만 미만	13.0
600-700만 미만	7.0
700만 원 이상	13.0

<표10> 수원시 월 평균소득 분포[176]

구분		가구분포(%)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4.9
	100-200만	18.4
	200-300만	20.7
	300-400만	18.1
	400-500만	12.8
	500-600만	7.0
	600만 원 이상	8.0

174) 2014년 수원시 조사발표 자료-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71-3740000-000115-10
175) 시제9회 사회조사 결과표[용인](2014년12월16일)
176) 2014년 수원시 조사발표 자료-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71-3740000-000115-10

<표9>에서 보는 것처럼 수지구는 소득 분포도를 봤을 때 젊은 직장인(300-400만)과 전문직 종사자(700만 원 이상)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산층(월422만 이상)이상의 구성 비율이 48퍼센트로서 인구의 약 절반이 중산층 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용인시 전체 중산층 비율(38퍼센트)에 비해 수지구가 약10퍼센트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표10>에서 보듯이 2014년 기준 중산층 기준 소득을 4인 가족 기준 월422만원으로 보았을 때에 수원시의 27.8퍼센트가 중산층이상의 소득을 보이고 나머지 약 60퍼센트에 해당되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400만원에 몰려있는 점에서 서민가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수지는 난개발로 인해서 민간업자에 의한 중대형평수의 민간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면 광교와 수원에는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많았다. 따라서 교회 내에 삶이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러한 계층의 유입은 교회로서는 기회이자 사명이 아닐 수 없다. 물이 아래로 흘러야 썩지 않듯이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서 부터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는 기회요 사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동시에 양 지역간의 지역적인 편차가 갈등의 소지가 될 위험요소도 역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다. 세대 간의 격차

건축 전에도 교회 내에는 젊은 층들이 많았다. 하지만 입당하면서 젊은 층인 30대와 40대 초반의 성도들의 등록이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따라서 2015년 현재 더사랑의교회의 성도들의 비율을 보면 20-40대가 64,7퍼센트를 차지한다.

<표11> 더사랑의교회 청장년 연령별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20대	303	8.6
30대	835	23.6
40대	1151	32.5
50대	623	17.6
60대	378	10.7
70대 이상	247	7.0

교회가 이렇게 젊은 층이 많아지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수지와 수원의 인구 분포 상

젊은 세대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표12> 용인시 연령별 인구 구성비[177]

구분		구성비(%)
연령	10대	13.15
	20대	11.29
	30대	16.53
	40대	19.75
	50대	12.85
	60대	7.73
	70대	4.96
	80대 이상	1.92

<표13> 수원시 15세 이상 연령 분포(수원시 100퍼센트 기준)[178]

구분		가구분포(%)
연령	15-19세	9.3
	20-29세	17.6
	30-39세	21.4
	40-49세	22.6
	50-59세	16.2
	60세 이상	13.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용인시는 30-40대 인구 구성비가 높으며(36퍼센트), 10대 구성비도 높다. 이는 학령기/청소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수원시 역시 인구 연령대가 20-49세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보아 청·장년층 인구분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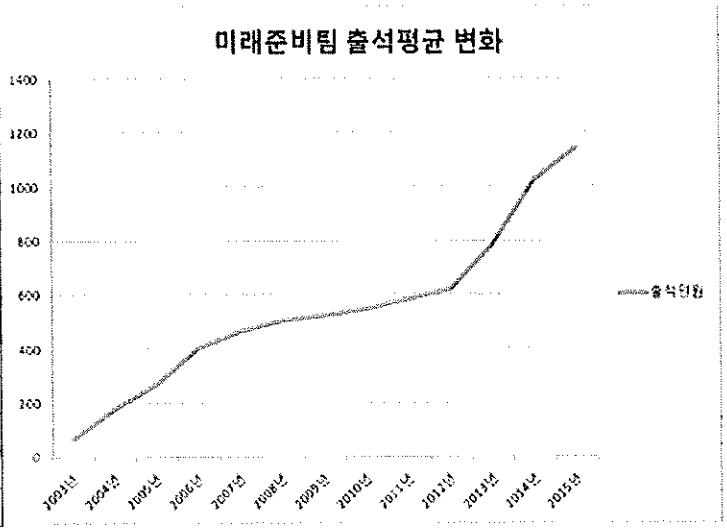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교회를 찾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녀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가진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것이다. 둘째로 젊은 부부들은 신앙의 2세대들로서 헌신하고 섬기기보다는 누리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교회 내 봉사나 소그

177) 시제9회 사회조사 결과표[용인](2014년12월16일)
178) 2014년 수원시 조사발표 자료-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71-3740000-000115-10

룹활동과 심방 등에 소극적이고,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자기들의 여가생활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간섭이 적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큰 규모의 교회를 찾는 것이다. 셋째로 상황적으로도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바쁜 시기이고, 아이들이 어려서 교회봉사나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그러다보니 그들은 자신들을 돌봐줄 교회를 찾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교회 내 소그룹 리더들인 순장들의 감당해야할 짐이 많아졌다. 네 번째로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필요에 의해 대형교회를 찾으면서도 의식적으로는 교회의 대형화와 세속화를 경계하는 비판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섯 번째로 그들을 통해 교회가 돌보아야할 어린 자녀들을 많아 졌고 <표14>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세대인 주일학교가 성장했다.[179]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주일학교의 성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를 넘어서서 이내 공간부족의 문제가 초래되었고,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아울러 이 젊은 세대들은 50대 이상이 경험한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성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점차로 기도의 영성이 약해지는 위험이 교회 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 젊은 가정들의 유입은 한편에서는 교회와 민족의 앞날에 소망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가 짊어져야할 많은 과제이기도 하다.

<표14> 주일학교 연도별 평균출석

	출석인원
2003년	70
2004년	181
2005년	271
2006년	406
2007년	466
2008년	507
2009년	524
2010년	550
2011년	585
2012년	623
2013년	788
2014년	1025
2015년	1145



179) <표13>의 주일학교 연도별 평균출석을 참고하라.

라. 일꾼의 부족

교회가 급성장하다보니 성도 수에 비해 헌신된 일꾼이 부족한 현상이 심해졌다. 앞서 언급한 여러 이유로 많은 신자들이 소비적인 태도를 보이고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서 봉사하며 섬기려는 사람들은 적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헌신된 성도들에게 짐이 가중되었고, 기도에 힘쓰던 성도들까지도 많은 일들로 바빠진 까닭에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로 바빠서 기도와 말씀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것처럼 기도의 사역자들이 많은 바쁜 일로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회의 규모는 커져 가는데 교회의 기도사역자의 숫자는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을뿐더러 더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기도사역에 균열이 생기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 목회철학의 재정립 '다시 본질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불만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며 건축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성도들의 입장에선 과연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했는가하는 회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더사랑의교회는 다시 한 번 목회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며 함께 고민한 끝에 더사랑의교회의 목회철학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러한 목회철학의 재정립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때 더사랑의교회의 목회철학을 주기도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정신에 기초하고자 했고, 여기에 근거하여 기도사역을 목회철학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이다.

가. 더THE사랑의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광교로 이전하면서 교회 명을 더사랑의교회로 바꾸게 되었다. '더'는 영어의 THE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THE의 세 글자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3대사역인 가르치고(Teaching) 치유하고(Healing) 전파하는(Evangelizing) 사역의 첫 글자(Acronym)를 조합한 것이다. 이미 본 논문 2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

신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란 기도를 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지를 알아야한다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것은 먼저 성령을 구하여야하고 아울러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더사랑의교회의 첫 글자의 의미이고, 바로 이 THE를 온 교우가 앞으로 매진해야할 목회철학이요, 방향이요, 본질로 삼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더사랑의교회의 교역자들과 목양장로, 그리고 평신도지도자들은 마음을 모아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의논하였고 더사랑의교회의 목회철학의 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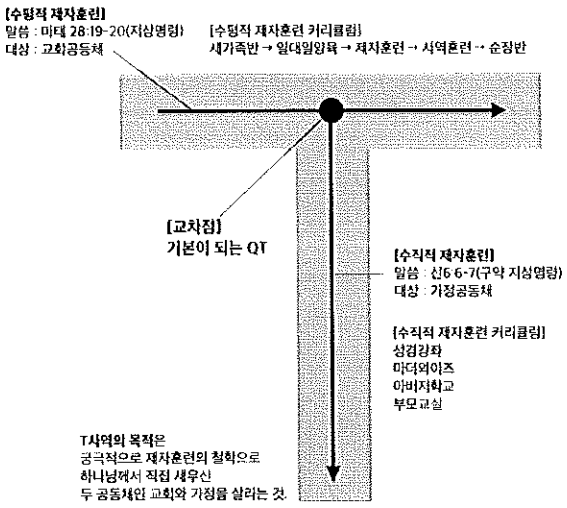
나. 가르치는 교회(Teaching)

더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목회철학을 가지고 매진해왔다. 본 논문은 목적상 기도사역에 초점이 있기에 자세한 언급을 생략하였지만, 본 연구자는 개척초기부터 12년 동안 12명씩 한 그룹으로 총 25개의 남, 여, 부부제자훈련을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실시하여 총 300명의 훈련생을 배출하고, 부교역자가 실시한 여직장, 시니어제자반을 통해서 60여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여 이들 중에 310명의 순장을 파송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부부가 순장으로 섬기는 부부다락방과 여다락방, 남다락방, 여직장 다락방을 포함하여 총 194개의 소그룹으로 성도들이 매주 금요일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교제를 나눈다. 더사랑의교회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서 중보기도를 통한 기도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배후에 있었던 말씀사역에 기인한다. 말씀으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수가 있었다. 더사랑의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로서 핵심이 되는 본질인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온 교우가

180) 목회철학을 재정립하기 위한 토론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목양장로 일일 수련회 2)교역자 4주간의 워크숍 3) 목양장로와 교역자 연합모임을 통한 세 개의 팀 구성, 4) 순장들과의 비전공유모임 5) 4주간의 비전재정립에 대한 설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기초로 하고, 그 바탕위에서 제자훈련사역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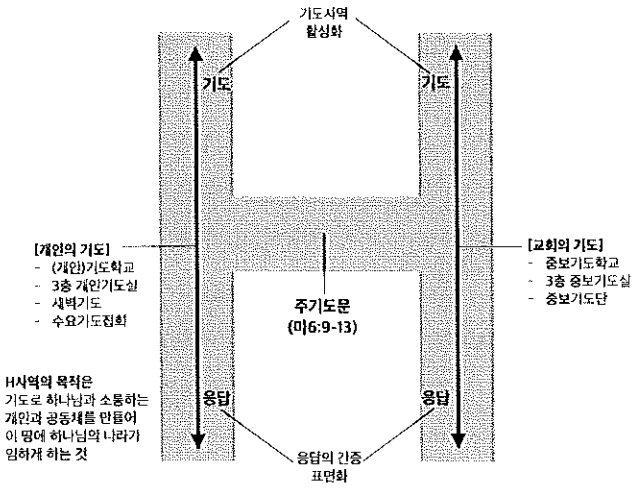
<그림1> Teaching 사역의 개요



다. 치유하는 교회(Healing)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치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다.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신다.

<그림2> Healing 사역의 개요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심으로서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기도함으로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더사랑의교회는 성도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역의 핵심으로 중보기도사역을 두고, 교회적인 연합기도와 개인기도의 두 기둥을 굳건히 세움으로서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한다.

라. 전파하는 교회(Evangeliz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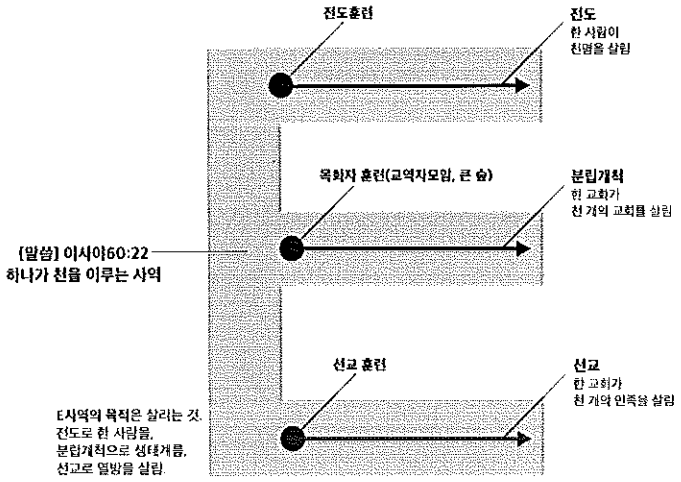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한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게 되고 그 들음은 교회가 복음을 전도해야만 가능하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흐름이 많지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았다. 더사랑의교회는 이 위기 속에 있는 세대를 향해 전도하는 일을 교회의 본질로 삼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더사랑의교회는 온 교우가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사랑의전도단, 이웃사랑부, 문화사역 등과 연대하여 지역복음화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아울러 온 교우가 모일 때마다 불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열린 다락방[181]과 대각성전도집회[182]에 초청하기로 하였다. 더사랑의교회의 예배당을 신자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기 전에, 불신자를 전도하는 사명의 도구로 인식하게 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아울러 분립개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상명령성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전파하는 사역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81) 매주 모이는 다락방모임과 달리 이 날은 믿지 않는 이웃들을 다락방에 초청하여 식사나 다과를 나누며 간단한 게임과 함께 진행한다. 순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도 나누는 등 초청된 이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182)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이며, 매년 수능시험이 마치는 주간에 진행된다. 믿지 않는 이웃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문화공연을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행사를 위해 부활절에는 초청할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으며, 가을특별새벽부흥회 마지막 날에는 대각성전도집회를 위한 발대식을 교구별로 갖고 기도하는 등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한다.

<그림3> Evangelizing 사역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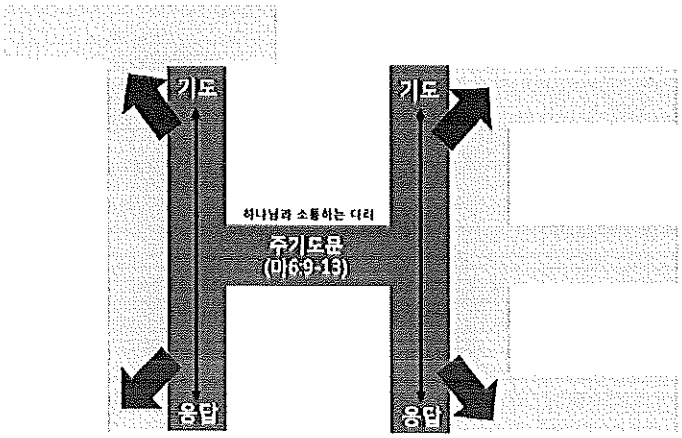
3. 목회철학의 근간으로서의 기도사역 재구축

앞의 표에서 보았듯이 교회가 성장하면서도 새벽기도와 수요기도회의 인원이 비례적으로 늘지 않은 이유는 기도훈련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당면한 교회의 봉사들로 분주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다. 목회철학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기도가 약해지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사역을 재구축하고 기도의 자원들을 다시 모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다음과 같이 기도사역의 철학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가. 기도가 목회철학의 연결고리가 됨 T-H-E

목회철학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으로 말씀을, 치유하는 사역의 핵심으로 기도를, 전파하는 사역의 핵심으로 전도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의 순서에 있어서 기도를 말씀과 전도의 중간에 위치 시켰다. 기도를 통해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 하는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에, 기도사역을 중심에 위치시켰고 모든 사역을 기도의 바탕위에서 하도록 하였다. 목회철학을 재정립하면서 기도사역을 모든 사역의 근본으로 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4> 목회철학의 연결 고리인 기도



나. 기도사역의 신학적인 기초 재정립의 필요성

기도사역위에 세워진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사역의 신학적인 기초가 허약한데 있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성경적인 기초위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사역을 해왔지만 돌아보면 기도사역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인 받침이 부족하였다. 그러다보니 기도가 몇몇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거나 혹은 기복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기도의 폭이 제한되거나, 다른 봉사사역이 있으면 그것과 쉽게 그 자리를 맞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다. 경험에 의하면 그 어떤 자리보다 기도의 사역자가 비운 자리는 쉽게 대신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기도의 사역자가 기도사역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역과 쉽게 맞바꾸는 일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적인 기초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다.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사역의 재발견

기도사역의 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만나게 된 것이 주기도문이었다. 특별히 2014년 가을 주기도문을 가지고 두주간의 특별 새벽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사역의 핵심 근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183] 김세윤 교수의

183) 2014년 가을 특별새벽집회는 9월22일부터 2주간 '주기도문 강해'로 진행되었다.

주기도문강해, 톰 라이트의 *주기도와 하나님나라*등 주기도문과 관련된 많은 책을 참고하며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주기도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나라 운동의 요약으로서 주기도의 핵심 사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았다.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백성들이 항상 올려드리고 앞세워야하는 기도요, 기도사역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가 되는 가르침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 동안 약해져가는 기도사역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던 본 연구자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기도사역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일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아울러 성도들이 2주간 특별새벽부흥회를 통해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당시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던 김송이 집사가 특새 게시판에 올린 간증의 일부이다.

> 간절하게 간구해야지 다짐하고 시작한 특새였습니다. 그런데 특새의 다섯 새벽이 지나자 저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저런 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84]

성도들에게 기도의 참 목적과 그 능력을 가르쳐줄 때에 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하나님나라를 위한 기도의 사역자로 나서는 것을 보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기도의 사역자들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다. 이 주기도문이 교회의 기도사역을 재정립하는 기초가 된 것이다.

라. 기도사역을 통한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회복의 비전

교회의 기도사역은 단지 교회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민족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한 사역이 되어야한다. 변화되지 않는 교단의 정치문제, 신학교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문제, 성도들의 저하된 윤리의식,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 이슬람의 공격, 동성애 문제 등 한국

184) 더사랑의교회 웹사이트, 특새은혜나눔 게시판 인용 2014년 9월 27일 Online: http://thesarang.kr/EZ/board/view.asp?seq=51&page=1&BoardModule=Board&tbcode= dawn05

교회를 향한 도전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기도사역이다. 이러한 비전을 품고 더사랑의교회 기도사역은 그 사역의 범위를 넓혀 온 세계적인 하나님나라의 통치를 바라보기로 하였다.

마. 새로운 비전을 향한 기도사역자들의 재규합과 헌신

기도사역의 재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사역자들을 재규합하는 것이다. 기도에 은사가 있는 헌신자들이 그 어떤 사역보다 기도사역이 중요함을 깨닫고 기도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더사랑의교회는 기도사역팀을 결성하고, 주기도학교를 개설하는 등, 기도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도에 헌신하도록 기도사역 시스템을 재정리하였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주기도가 제시하는 신학과 방향을 따라서 더사랑의교회가 기도사역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분석, 평가함으로서 교회 내에서 기도사역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제 5 장
더사랑의교회 기도사역의 실제

지금까지 더사랑의교회가 어떻게 기도사역의 토대를 마련하고 교회 내에서 기도사역을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건축 이후 급성장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목회철학에 합당한 기도사역의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근거한 기도사역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를 더사랑의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사역을 중심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주기도의 신학을 따른 기도사역의 실제적인 모델을 구상하고자 한다.

실제적인 적용에 앞서 먼저 주기도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역적인 적용을 정기 기도집회, 주중 릴레이 중보기도사역, 주일 중보기도사역, 기도 사역팀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1 절 주기도문을 응용한 기도제목

2장에서 언급한대로 주기도는 문자적으로 암송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사상을 따라서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주기도에 기초한 기도사역을 하려면 먼저 주기도의 핵심내용인 하나님나라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할지를 기도제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주기도의 세 가지 영역

2장에서 주기도의 핵심사상을 언급하면서 당신청원의 핵심은 하나님나라의 도래

에 있다고 했고, 우리 청원의 핵심은 하나님나라에 편입된 백성들의 건강과 보호를 위한 기도에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그 본을 보여 주셨다고 했다. 그 첫째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이고, 둘째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요 이에 더해서 공동체가 믿음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기도제목을 분류하여 주기도를 적용 할 수 있다.

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다. 조나단 에드워드 역시 당시의 침체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합주회를 결성한 목적을 성령의 충만한 임재에 두었다. 먼저 성령의 충만 이후에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고 그 결과 선교의 사역이 일어난다고 이해하였다.[185] 주기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면 먼저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해야한다.

나. 목회사역을 위한 기도(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함)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시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심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킨 것처럼 오늘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한다. 이것이 목회사역의 핵심이기에 이 기도는 목회사역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

다. 공동체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기도

주기도의 두 번째 부분인 우리 청원을 위한 기도는 공동체의 평안과 보호를 위한 기도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아래 머물며 살롬 속에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늘 일용할 양식, 즉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 염려근심 욕심에서 벗어나도

185) 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28.

록 기도해야한다. 주께서 성도들의 삶의 경제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한다. 둘째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항상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도록 기도해야한다. 셋째는 시험과 사단을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한다. 그리하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한다.

2. 세 종류의 기도카드

앞에서 주기도문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기도제목을 분류하여 정리해야함을 이야기했다. 동시에 기도제목을 그 시간과 목적에 따라서 세 종류로 제시하고자한다. 첫 번째는 매일 5분 정도면 기도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주기도의 핵심을 따라서 기도제목을 정리한 5분용 주기도 기도카드이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돕는 30분용 주기도 기도카드이다. 세 번째는 주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돕는 자녀를 위한 주기도 기도카드이다.

가. 5분용 주기도 기도카드

5분용 기도제목은 몇 번만 기도하면 주기도의 핵심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더사랑의교회에서 매일 5분씩 하루 세 번 기도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186]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의 핵심사상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우리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1) 당신청원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령이여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 하시어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

186) 더사랑의교회에서는 하루 세 번 기도운동을 위해서 주기도 5분 기도카드를 제작하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켜 순종케 하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의 사모함을 주사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연악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날마다 하늘의 평강, 기쁨을 부어주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2) 우리 청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는 평생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의 필요와 염려는 기도로 구하고 맡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상처주고 손해 입힌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어, 날마다 하늘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과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궤계에서 건져주시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 30분 용 주기도 기도카드

30분용 주기도제목은 주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살려서 그것을 기도제목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루터도 주기도문을 즉흥 변주곡처럼 만들어서 기도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아뢰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의 가정과 재정,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제가 모자람 없이 부양하고 가르쳐서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187] 이처럼 우리도 주기도문의 각 구절마다 의미를 더해서 기도를 덧붙일 수 있다. 더사랑의교회에서는 교우들에게 이 기도제목을 나누어주고, 각자가 코팅하여 하루에 한 번씩 주기도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대로 반복해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자신만의 변주곡을 만들어서 기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빠가 되시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187) Timothy Keller, *팀켈러의 기도*, 139.

되시는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당신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온 백성에게 나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이의 아버지요 창조자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선택하여 어두운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큰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강한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언제나 내 가는 길을 지켜보시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아버지 이십니다.

(2)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만 알고 거룩을 알지 못하여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음을 회개합니다 자녀로서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졌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뛰어나신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통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칭송 받게 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3)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제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 하시어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사람들이 불순종에서 돌이켜 주의 통치 가운데 돌아오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질병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하늘의 평강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벌려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전쟁 중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팔아서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사게 하소서

(4)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늘에서 주관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 속에 당신의 온전하고 보배로운 계획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겸손과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속히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5)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필요를 채워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걱정과 의심을 버리고 오늘도 나의 필요를 구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빠를 신뢰함으로 결코 돈 걱정에 메여 인생을 소비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와의 매일의 교제를 통해 내 영혼의 빵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나를 노예로 만드는 탐심을 이기고 이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은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지게 하옵소서. 오직 내 마음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차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비전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6)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의 깊은 침체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함임을 알게 하소서. 아주 작은 죄라도 품고 있으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알고 언제나 죄에 민감하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복수심이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용서를 가로막음을 알게 하소서. 공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그에 대한 복수심과 미움과 원한을 다 맡기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용서를 실천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때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날 치유하여 주옵소서.

(7)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늘 엿보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유혹당하여 넘어질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유

혹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도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싸움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오직 기도만이 마귀를 궤계를 이기는 승리의 길임을 알고 항상 깨어 기도에 전념케 소서. 오늘도 마귀가 제일로 표적 삼는 영적인 지도자를 주께서 보호하소서.

(8)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잠시 교회가 욕을 먹고 침체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후 승리를 믿고 낙심치 말게 하소서. 잠깐 뿐인 세상의 영화와 권력에 유혹받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오직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영원히 돌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녀위한 주기도 기도카드

많은 부모들이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주기도를 응용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제시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올바르고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5분용 기도제목의 구조를 응용하였다.

(1) 당신청원, 우리 아이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아이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옵소서. 아이의 심령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 구원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항상 복음이 마음속에서 살아있게 하시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옵소서. 자신의 고집과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큐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공부의 압박,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피곤,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등을 치유하사고 하나님나라의 풍성한 능력,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2) 우리 청원,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아이가 평생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사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대학진학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취업을 통해서 성실한 경제활동하게 하시며, 성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우리아이가 죄용서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울러 다른 사람들로 부터 받은 상처와 모욕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아이를 모든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성적인 유혹, 나쁜 친구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사단과 악한 친구들로 부터 지키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 몸과 영과 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제 2 절 정기기도집회에서의 주기도 적용

주기도문을 응용한 기도제목을 통해 제시한 것처럼, 단지 주기도문을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때 기도는 더욱 강력해진다. 더 나아가서 이 주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닌 공동체의 기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가 연합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쉼 없이 한다면 그 능력은 훨씬 배가 될 것이다.

이제 주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를 더사랑의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더사랑의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기도회의 방식을 통해서 주기도를 통한 기도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기도회 방식이다. 새벽기도회나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와 같은 전통 적인 기도회를 잘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미 교회 내에 중요한 예배와 영성훈련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임들을 활용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기도사역을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만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사역이다. 보다 효율적인 기도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기도사역에 헌신하게 할 때에 열매와 효과는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성공적으로 기도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기도의 현장에 투입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목회자는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먼저 전통적인 기도집회 속에서 어떻게 주기도사역을 적용하여 진행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수요심야기도회(매주)

가. 수요일에 심야기도회를 하는 이유

한국교회는 금요철야라는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소중한 기도회가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바빠지면서 점차로 금요철야는 금요심야기도회로 대체되고 지금은 이마저도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요즘은 교회마다 부부중심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금요일 밤에 모이는 경우가 많아서 금요심야기도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런 면에서 수요일로 금요기도회를 대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원래 기도회로 시작했던 수요기도회가 요즘은 수요예배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장로교 예배모범에 의하면 수요예배에 대한 언급이 없다.[188] 다만 기도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다고 언급할 뿐이다.[189] 수요예배는 정기예배가 아니라 새벽기도회처럼 기도회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다. R. A. 토레이(R. A. Torrey)는 교회에서 기도회가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되어야하고, 실제로 기도회가 올바르게 이행되기만하면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190] 교회내의 모임은 예배와 더불어서 기도회 모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한다. 한국교회의 능력은 이러한 기도회의 능력에 있었는데 점차로 기도회는 사라지고 모임이 예배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회가 점차로 잃어가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요기도회를 잘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더사랑의교회도 금요일 저녁에는 소그룹모임인 다락방으로 모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수요저녁예배시간을 심야기도회로 디자인하여 모이기 시작하였다. 개척초기에는 간헐적으로 수요예배를 몇 주간 씩 심야기도회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본격적으로 2005년 3월부터 수요심야기도회로 전환하여 지금에 까지 이르고 있다.

나. 수요심야기도회의 장점

첫째로 수요심야기도회의 가장 큰 장점은 성도들이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데 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였다(렘 29:12-13, 눅 18:7). 성도

18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1993), 241.
189) Ibid., 249.
190) C. Peter Wagner,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Churches that pray)*홍원팔 역(서울: 서로사랑, 1998), 128.

개인적으로나 교회, 혹은 국가적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할 일들은 참으로 많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보다는 소리를 내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소리를 내이 표현하는 것으로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셨다.(대하16:9, 렘29:13) 한국교회의 무능력은 이렇게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상실한데 있다. 수요심야기도회의 한 참석자(문현숙 권사)는 수요심야기도회가 좋은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배당에서 유일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이영애 권사) "나의 마음에 답답한 기도 제목들을 목청껏 소리 내어 기도함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로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정기적으로 합심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성경에는 많은 합심기도의 실례가 나온다. 오순절 성령강림도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행 1:4)에 이루어졌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기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행 12:5). 구약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삼상 7:5-9)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마 18:19). 오늘날 교회에는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합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한다(마 21:13).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의 중심지가 되어야한다.[191]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닌 공동체적인 기도였다. 수요심야기도회는 그러한 주기도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최적의 시간이다.

다. 수요심야기도회에서의 주기도 적용과 순서

더사랑의교회는 수요심야기도회의 중점을 두 가지로 둔다. 첫째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마음껏 부르짖도록 하고 둘째는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한다. 수요심야기도회에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온 성도들

191) C. Peter Wagner,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130.

이 많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기도의 짐들을 충분히 기도로 풀어놓게 한다. 마음에 개인적인 무거운 짐을 가진 성도들에게 먼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후에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 전념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기도방법에 따른 것으로 첫째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먼저 성령에 관한 찬양을 몇 곡 부르는데 본 연구자가 주로 부르는 찬양 중 찬송가는 '불길 같은 주 성령(찬송 184장)'을 자주 부르고 복음성가(CCM)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마지막 날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등을 자주 부른다. 찬양을 뜨겁게 부른 후 10분 정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시간을 가진다. 수요심야기도회는 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적용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5분), 개인적인 걱정, 기도제목을 간구하는 기도(15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15-찬양포함), 가르치는 사역을 위한 기도로서 말씀의 부흥과 예배, 설교, 목회자위한 기도(5분) 치유하는 사역을 위한 기도로서 환우를 위한 기도와 치유기도(10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한 기도로서 선교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5분), 그리고 마무리 기도로 마친다. 순서의 중간 중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회를 인도한다.

라. 수요심야기도회의 유익[192]

수요심야기도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심야기도회에서 얻은 유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위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으로써 환우를 위한 기도,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응답이다. 2위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영성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었다. 3위는 마음의 답답함을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좋았다. 4위는 찬양을 통해 기도가 깊어졌다는 것이고 그 외의 대답으로는 기도의확신이 생겼다, 기도가 성장했다. 기적을 체험했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등이었다. 성도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

192) 심야기도회에 참석하는 2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음.

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특별새벽부흥회(봄/가을)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의 분주한 삶과 라이프 스타일은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특별히 수지지역은 서울에서 퇴근하여 귀가하는 시간이 늦기에 저녁집회보다는 새벽집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그래서 더사랑의교회는 개척초기부터 새벽부흥회를 자주 열었고 지금은 일 년에 봄, 가을로 각각 2주간씩 특별 새벽부흥회를 진행한다. 특별새벽부흥회는 더사랑의교회의 기도와 말씀훈련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집회로 자리매김 되었다.

가. 특별새벽부흥회의 성격

더사랑의교회의 특별새벽부흥회는 말씀과 기도의 부흥에 초점을 둔다. 봄에는 봄방학기간에 진행하여 자녀들과 온가족이 함께 참석하도록 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풍성한 말씀과 기도의 축제로 운영한다. 가을에는 담임목사가 성경의 한권 또는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두 주간 동안 깊이 있는 말씀과 기도회로 진행한다.

특별히 집회를 봄과 가을 각각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함으로서 이후에 이루어질 소그룹(다락방)모임, 훈련사역, 부서별 전도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는다.

나. 특별새벽부흥회의 장점

특별새벽부흥회는 2주간 동안 새벽을 깨움으로서 일상의 삶속에서의 경건의 체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평소에 기도에 게을리 하던 성도들이 이 집회기간에 영적으로 각성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한다. 온 교회가 독려하다보니 평소에 믿음이 없어 새벽에 나와 보지 않던 성도들도 나왔다가 도전과 은혜를 받는다. 한 참석자의 소감이다(이성희B 성도).

> 새벽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특별새벽부흥회를 통해서였다. 새벽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였던 나에게는 쇼킹한 사건이었다. 주일 예배 때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뜨거움이 특별새벽집회 가운데 있었고, 일 년에 두 번 있는 특별새벽집회를 통해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하게 되면서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

또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석하기에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에 유익을 준다. 아이들의 결심 때문에 부모가 따라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봄 특별새벽집회에는 고3 수험생들이 개근을 하기도 한다. 가정이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계기가 된다. 봄에는 성도들이 다양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다채로운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움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 있는 영성을 함양하게 된다. 가을에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교회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담임목사가 성도들과 깊이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2주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평균출석률이 그 어느 집회보다 높다.

<표15> 연도별 특별새벽부흥회 출석통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70	255	360	435	516	537	550	734	879	836	959	1.266

<표15>를 보면 해마다 출석률이 높아지고 출석성도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석하여, 성도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다. 특별새벽부흥회에서의 주기도 적용과 순서

특별새벽부흥회기간은 새벽인지라 기도시간이 길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들이 두주간이란 긴 기간을 집회에 집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쉬운 점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새벽의 장점은 맑은 정신으로 말씀에 집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벽에 약 40분 정도 말씀에 집중하면 두 주간 동안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진보와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뒤에 이어지는 20분의 기도는 비록 짧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로 충만해진다. 기도회는 보통 매일 새벽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하며, 20분 동안 세 가지 정도의 기도제목을 나누어서 온 교우가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도록 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마무리 한다.

새벽 합심기도회의 기도제목은 대체적으로 이미 선포된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다보면 주기도문의 정신과 사상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 비록 새벽시간이 짧지만 새벽시간의 집중력과 본당을 가득메운 열기, 그리고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영적인 충만과 몰입도가 매우 높아서 합심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며 삶이 변하는 체험 등의 간증들이 흘러넘친다.

특별새벽부흥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새벽 4시 50분에 시작하며 10분간 찬양을 드린다(4:50-5:00). 그 다음 사회자가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격려하고 서로 인사의 교제를 시킨 후에 진행에 대한 광고를 하고 부서별로 그날에 준비한 특송을 찬송한다(5:00-5:10). 다음에 설교자가 나와서 약 40분 정도 말씀을 전한 후 (5:10-5:50). 담임목사의 인도로 20분정도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진다(5:50-6:10).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도록 한다.

라. 특별새벽부흥회의 유익[193]

특별새벽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특별새벽부흥회의 유익에 대한 설문의 결과를 보면 1위는 "영적인 회복과 성장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었다"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좋았다." 3위는 "고난을 이길 위로와 평안을 주셨다." 4위는 "새벽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 기타로 "부지런해지고 기도의 사명을 깨달았고 복음을 증거 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가족과 하나 되었다"는 대답이 있었다. 특별 새벽부흥회는 2주간 동안 이어지기에 성도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의 결단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새벽에 말씀을 깊이 듣다보니 기도가 말씀중심으로 올려지면서 점차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193) 특별새벽부흥회에 참석한 2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기도폭풍집회(분기별)

더사랑의교회는 일 년에 4번 주일예배 후에 전교인 기도폭풍집회를 가진다. 주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안성에 있는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4시부터 밤 9시까지 집중기도집회를 가진다. 기도폭풍집회는 과거 한국교회의 산상기도회의 전통을 적용한 집회로서 온 교우가 산상에 올라가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함과 동시에 온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데 있다.

가. 기도폭풍집회의 장점

과거에는 산에 가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여러 날 기도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으나 현대 교회는 너무나 바빠서 이러한 영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기도폭풍집회는 잃어버린 산기도의 영성, 기도원의 영성을 맛보는 새로운 경험이 된다. 익숙한 교회의 환경을 떠나서 수양관으로 차를 타고 떠나는 시간부터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결단으로 마음을 준비하기에 첫 시간부터 사모함으로 집회에 참석한다. 또한 4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에 분위기가 뜨겁고 충만하다.

나. 기도폭풍집회에서의 주기도 적용과 순서

기도폭풍집회는 1부와 2부로 진행한다. 수양관에 도착하면 성도들은 로비에서 등록을 한 후에 예배실로 입장하고, 이후 찬양과 기도회가 이어진다. 찬양 후에 15분 정도 자신을 위해서 합심기도를 한 후에 기도카드를 나누어주고 개인의 기도제목, 교회(각 소속부서)의 기도제목, 나라의 기도제목을 적게 한다. 그 다음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넷씩 짝을 지어 교회의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게 한다. 그 다음엔 8명씩 짝을 짓고 나라를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게 한다. 1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30분 정도 영감 있는 찬양의 시간을 가진다(4시-4:30). 그 다음에 부교역자의 인도로 약 1시간동안 기도회를 진행한다(4:30-5:30).

1부 찬양과 기도회를 마치면 저녁식사 후 2부 집회로 이어진다. 메인 집회인 2부에는 먼저 찬양을 20분 정도 하는데 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찬양을 함

께 드린다. 그 다음 약 50분 정도 담임목회자가 말씀을 나눈다. 이때의 설교의 주제는 주로 성령님의 임재와 영적인 각성, 부흥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회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 기도폭풍집회 저녁기도회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둘째는 주기도의 정신을 따라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셋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한다. 그 구체적인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가르치는 사역(T)을 통해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개인과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소서. 주일학교, 다락방, 훈련 등의 사역이 왕성하게 부흥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 순장들에게 능력을 더하소서(이때에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해준다.). 전파하는 사역 (E)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사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교회 내 전도팀과 이웃사랑팀을 축복하시며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부으소서(이 때에 전도팀의 섬김이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기도해준다.). 치유하는 사역(H)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케 하소서.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치유를 경험케 하소서(이 때에 교회 내 긴급한 중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서 온 교우들이 함께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아울러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게 하고 그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를 기도인도자가 드린다.). 셋째는 공동체의 평안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로서 참석한 성도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한다. 용서하는 기도로서 관계가 막힌 사람들과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 다음은 유혹과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로서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드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드린다.

2부 집회의 시간 배분은 찬양 시간 20분(6:50-7:10), 설교 50분(7:10-8:00), 기도회 70분(8:00-9:10)으로 이루어진다.

다. 기도폭풍집회의 유익[194]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도폭풍집회에서 받은 유익으로서 1위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서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위는 교우들과 기도로 하나되는 경험을 하였다. 3위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치유를 경험하였다. 4위는 말씀을 통해 기도가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였다. 5위는 뜨거운 찬양으로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설문의 응답을 보면 1위와 3위가 깊은 기도, 기도의 영성에 대한 것이다. 사모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

4. 기도회 인도자의 영성과 자세

이상의 수요심야기도회, 특별새벽부흥회, 기도폭풍집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드리는 합심기도회이다. 합심기도회에서는 인도자의 영성이 기도회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피터 와그너(Wagner, C. Peter)는 합심기도회에 사람들이 잘 참석하지 않는 이유들로 첫째는 기도회가 지루하다. 둘째는 나의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셋째는 큰소리로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 넷째는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느낌이 없다. 다섯째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꼬집었다.[195] 결국 기도회는 인도하는 사람의 준비와 영성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영감 있는 기도회를 위해서 인도자가 준비해야할 몇 가지를 사항을 제안한다.

가. 인도자가 먼저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훈련해야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할 뿐 아니라 기도회를 자주 인도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젊은이 사역시절에도 금요기도회를 따로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 마다 기도회를 인도하였고, 사랑의교회에서 영성훈련을 담당할 때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심야기도회를 4년 동안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개척하고 각종 기도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다. 기도에는 따로 왕도가 없다. 직접 부딪혀서 인도해보는 것이다.

---

194) 기도폭풍집회에 참석한 2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195) C. Peter Wagner,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130.

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에 도전을 주라.

기도회가 어떤 분위기와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는 앞부분에서 말씀의 방향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달려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을 격려해야한다. 기도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접근보다는 기도의 유익과 바른 기도의 실제적인 자세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또한 기도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로 기도를 하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배우게 해야 한다. 수영을 다 배우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는 이론으로 마스터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한다. 기도는 수준 높게 해야 바른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기도는 지정의의 인격적인 활동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이다.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기도는 내 지정의의 진솔한 인격적인 활동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다. 말씀과 기도에 맞는 찬양을 미리 섬세하게 준비해야한다.

준비된 찬양을 찬양팀 반주자들과 미리 연습을 하고 맞추어보고, 음향의 상태도 사전에 점검해야한다. 찬양의 반주가 매끄럽지 않다거나 싱어들의 화음이 맞지 않거나 음향의 상태가 불안정하면 기도회에 많은 방해가 된다. 방법은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맞춰보는 것뿐이다. 찬양곡의 선정은 선포된 말씀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골라, 찬양을 부를 때 설교말씀을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설교와 동떨어진 찬양은 가벼워진다. 찬양이 말씀과 동떨어질 때는 곡조와 분위기에 의존하게 되지만, 말씀과 어울리는 가사의 찬양은 곡조에 의존하지 않아도 깊이 있게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찬양은 기도회의 방향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시하는 기도제목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한다. 세심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 찬양곡을 선정해야하고, 그 곡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도 고려해야한다.

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한다.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인도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정서에 민감해야 한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으면 시간에 매이지 말고 성령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어야한다. 기도제목의 흐름을 잘 선정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하고, 먼저 개인의 기도제목을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음에 가져온 근심과 무거운 짐을 놔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인 기도제목과 염려,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한 후 주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기도의 정신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이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이끌어간다. 반복적으로 기도회를 하다보면 성도들 안에 자연스러운 순서가 자리 잡게 된다. 그러면 어색함 없이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된다.

마. 기도회의 인도자는 통성기도를 이끌어갈 때 발성에 유의해야한다.

기도인도자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의 발성을 너무 분명하게 하면 회중들의 기도에 방해가 된다. 반면 기도의 소리를 내어 인도하지 않으면 분위기를 주도할 수가 없다. 방해되지 않는 적당한 발성을 통해서 영감 있게 기도함으로서 전체적인 기도의 분위기를 주도해야한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소리를 내어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하도록 한다. 평소의 새벽기도회에서는 자신의 기도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하여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권면한다. 하지만 수요심야기도회나, 특별새벽부흥회, 기도폭풍집회에서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한다.

바. 기도응답을 나누라.

기도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일뿐 아니라 함께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성도들과 자주 나누어야한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누고 때론 간증을 할 때에 성도들은 기도의 격려를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사. 담임목사가 기도회를 직접 인도하는 것이 좋다.

더사랑의교회는 담임목사가 직접 수요기도회를 주관할 때에는 출석성도 대비 기

도회 참석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직접 인도하지 않으면서부터 기도회의 숫자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피터 와그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합심기도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인식하지 않으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한다.[196] 결국 담임목회자의 모범이 중요하고, 담임목사는 강단에서 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한다. 무엇보다 목회자는 기도회 인도에 자신감이 있어야한다. 설교도 훈련이 필요하듯이 기도회 인도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 담임목회자가 자신이 설교를 못한다고 해서 부교역자에게 맡기지 않으면서 기도회는 자신이 없다고 부교역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자꾸 경험하면 기도회 인도자의 영성이 준비된다. 그러므로 맡기지 말고 담임목사가 직접 기도회를 인도하여야한다. 그래야 전교회가 기도의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다.

제 2 절 중보기도사역을 통한 주기도의 적용

목회자가 직접 인도하는 기도회도 중요하지만, 기도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도사역에 참여하도록 할 때 그 효율성은 더 높다. 기도집회의 단점은 참석자들이 피동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가 항상 이끌어주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인가 참여하길 원하는 성도들도 있다. 기도에 열정이 있는 성도들을 훈련하여 중보기도사역을 하면 많은 열매가 있다. 그런 면에서 중보기도사역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다른 성도와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목회자가 직접 인도하지 않고 기도사역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셋째는 기도가 쉼 없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목회사역에 엄청난 활력이 된다는 점이다.

중보기도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주기도를 적용하는지 더사랑의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보기도사역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는 중보기도사역의 개요와 철학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주중릴레이 중보기도사역, 주일중보기도사역을 소개하고 참여하였던 헌신자들의 설문을 토대로 그 유익을 살펴보고 평가해보려고 한다.

---

196) C. Peter Wagner,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137.

1. 더사랑의교회 중보기도사역의 개요.

가. 철학과 목적

모든 사역에는 철학이 있어야한다. 더사랑의교회의 중보기도사역은 네 가지 기도에 대한 철학, 즉 믿음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이다. 둘째 중보기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중의 하나라는 믿음이다. 셋째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특권과 권세를 받았고, 동시에 기도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넷째로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네 가지 철학 속에서 더사랑의교회가 중보기도사역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셋째 기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 성령의 도움으로 힘 있게 일어나는 것이다. 넷째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고통과 문제가 치유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케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기도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나라, 그리고 세계가 가운데 악이 잠잠해지고 선이 증대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 되도록 함이다. 일곱 번째 중보기도사역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산되도록 함이다.

이상의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사랑의교회 중보기도의 목적은 철저하게 주기도문의 핵심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있다. 중보기도의 대상이 개인과 교회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장, 동장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중보기도에 임한다. 또한 매일 똑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월간 단위로 쉼 없이 국가와 선교현장의 현안들을 업그레이드하여 기도한다.

나. 중보기도자의 자격과 의무

중보기도 사역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교회의 깊은 문제와 다른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 서야하기에 교회 안에서

검증된 사람들만 동참할 수 있다. 중보기도자의 자격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회에 등록된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둘째,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진정 기도하는 삶을 갈망하며 기도사역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한 교인이어야 한다. 넷째, 중보기도 기간 동안 한 주일에 한 시간 이상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며 헌신한 기도시간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기도제목의 내용들을 하나님께만 아뢰며 모든 기도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서 자신을 기도의 사역자로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응답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사59:2, 시66:18).

다. 중보기도사역의 전 과정 개요

중보기도사역을 하려면 8강으로 진행되는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고, 수요예배 중에 교우들 앞에서 헌신서약을 하고 중보기도단원으로 임명을 받아야한다. 임명된 중보기도사역자들만이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주중 릴레이 기도와 주일예배 중보기도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라. 중보기도사역을 위한 사전 준비

더사랑의교회는 중보기도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위한 두 개의 기도실과 행정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다. 각 예배실에는 누구나 중보기도요청을 할 수 있는 기도함이 부착되어 있고, 중보기도요청을 위한 일반 기도카드와 긴급기도카드, 기도응답카드가 비치되어 있다. 중보기도실에는 성도들이 요청한 기도제목과 교회와 나라의 기도제목이 매일 혹은 매주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준비된다. 훈련받은 성도들은 매주 한 시간 기도시간을 작정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훈련받은 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주일예배 중보기도를 위해서는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실과 가급적 예배를 영상으로 중계하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주일 예배 기도제목을 비치해야한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중보기도사역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2. 주중 릴레이 중보기도사역

가급적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요령을 제시해줌으로서 보다 질서 있게 사역이 이뤄지도록 도울 수 있다. 본 교회에서 제시하는 중보기도 사역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출석

출석시간을 엄수하게 한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기에 책임 있게 지켜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도착시간과 기도실에서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게 함으로 다음 중보기도자가 자연스럽게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해서 시간을 지체하는 일을 금지한다. 중보기도실에 입실 할 때에는 그들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실하게 되어 있고, 출석부에 반드시 서명하게 함으로서 얼마만큼 책임성 있게 동참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된 시간에 동참하지 못하면, 미리 중보기도 임원이나 사무실에 연락해야하고, 심지어 부부 사이일지라도 아무에게나 대리로 부탁할 수 없다.

나. 기도절차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고, 기도절차 시간표에 제시한대로 60분 동안 시간 분배를 잘해서 기도하도록 돕고 있다. 중보기도 제목 카드를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넘기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 안에 기도한 부분을 뒤로 넘겨 놓고 그대로 나오게 함으로 다음 사람들이 연이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 골고루 기도 요청자들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기도만 하지 못하게 하고, 임의로 카드를 바꾸거나 고칠 수 없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면, 기도편지[197]를 작성하고, 나가면서 '기도응답 게시판'[198]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

197) 중보기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때로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중보기도자는 중보기도단에서 제작한 기도편지를 작성하여 중보기도실 로비에 마련된 우편함에 넣는다. 이때는 반드시 중보기도단의 이름으로 보내며, 임원들이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중보기도 대상자의 주소로 발송한다. 기도부탁을 한 성도의 입장에서는 큰 위로를 경험한다.

198) 기도카드에 기도제목을 써낸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경우 응답감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제출한다. 임원들이 응답감사카드를 수거하여 중보기도실에 비치하는데, 중보기도사

린다. 실제적이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씀으로 더욱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동기를 불어넣게 된다.

다. 중보기도시간 분배

기도 헌신자가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이다. 이 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도하도록 한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도록 한 시간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기도실에 붙여놓는다. 한 시간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찬양 및 묵상 기도(5분), 긴급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5분), 일반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10분), 교회의 성령충만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5분), 가르치는(Teaching)교회를 위한 기도(5분), 치유하는(Healing)교회를 위한 기도(5분), 전파하는(Evangelizing) 교회를 위한 기도(5분), 교회 지도자 위한 기도(5분), 지역사회와 국가의 현안을 위한 기도(5분), 선교사를 위한 기도(5분),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또는 기도편지 작성)(5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순서에 해당하는 기도제목은 섬김이들에 의해서 매일, 매주 단위로 새롭게 준비된다.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하나님나라의 도래에 초점을 두고 성도와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라. 주중 릴레이 중보 기도사역의 통계와 열매

아래 <표16>에서 보는 것처럼 12년 동안 중보기도사역에 참여한 사람은 연인원 총 1,272명으로 총 54,274 시간의 중보기도를 드렸다.

2009년도 중보기도 사역보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9년(13, 14기) 중보기도 헌신자 숫자가 총 257명이고 이들이 중보기도한 시간은 총 5,335시간이며 성도들이 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카드 수를 보면, 총 1,744개(긴급기도 793개, 일반기도 951개)였고, 그 중에 성도들이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응답카드를 기록하여 보고 접수한 내용은 128건이었다.

역자들은 응답감사카드를 읽으면서 자신의 사역에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서 중보기도사역에 활력소가 된다.

<표16> 중보기도사역 통계[199]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도학교 수료자	42	100	150	140	110	90	105	185	40	80	105	125
헌신자	35	122	198	260	246	280	257	243	248	235	248	284
헌신시간	960	2873	4560	5400	4833	5830	5335	4693	4480	4250	5400	5660

요청한 기도가 응답받으면 기도응답카드를 적어내게 하는데, 요청한 카드의 개수에 비해서 응답을 받은 회신이 적은 것은, 중보기도단이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일을 잘 못하여 기도제목을 넣고 잊어버리는 까닭이다.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들을 때에 기도하는 사역자들은 힘을 내어 더욱 기도하게 되고, 아울러 기도를 요청한 성도들도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기에 기도응답카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마. 주중 릴레이 중보기도사역의 유익[200]

주중 중보기도사역에 참가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역에 참여함으로 얻은 유익 중에 1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도사역에 참여한 한 성도는 이렇게 간증한다

> 각각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모르는 분인데도 그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슬픔과 통곡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신다. 그 때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간절하게 느끼게 된다. (이경숙C 성도)

2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의식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고 3위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응답이다. 이연노 성도는 이렇게

199) 2005, 2006, 2010년은 중보기도학교를 3회(직장인들을 위한 세미나포함), 2011, 2012는 1회만 하고 재 헌신만 함. 기도시간은 여름사역을 위한 다락방릴레이기도 및 건축릴레이기도 및 현장 기도 등은 제외한 순수 중보기도사역 수치임. 2010, 2011, 2012년 헌신시간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건축릴레이기도 등으로 중보기도실 사역에 빠지는 경우가 다소 있었음.
200) 중보기도사역에 헌신한 2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간증한다. "성도와 목회자, 교회부서, 선교사, 국가를 위해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구체적으로 생기고,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영성이 회복되고 깊어졌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성령충만해졌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다, 영적인 시각이 생겼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하는지를 알았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구체적으로 생겼다는 등의 대답이 나왔다.

이러한 설문을 보면, 다른 어느 기도보다도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개월 동안 기도사역에 참여하여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쏟을 때에 그들이 얻는 유익은 참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다.

3. 주일 예배 중보기도사역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주일예배중보기도사역에 헌신하여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린다. 4부로 진행되는 예배의 한 부를 정하여 그 전이나 후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정한 예배시간에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한다.

가. 주일 예배 중보기도사역 방법

주일예배기도 헌신자는 정해진 예배시간 15분전에 입실하여 준비된 기도제목을 가지고 TV 모니터 예배실황을 보면서 합심기도를 하고, 예배순서에 따라 한 시간 이상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예배 전에 미리 모여서 서로간의 먼저 잠시의 교제를 나눈다. 합심해서 드리는 중보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와 의심 분열이 있으면 큰 방해를 받는다. 그러므로 기도동역자간의 상호교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잠시의 교제 후에 함께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 중보기도사역을 위하여 성령충만과 영적전쟁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예배가 시작되면 모니터를 보면서 각 순서를 위해서 기도문에 기준하여 합심하여 기도한다. 특별히 설교가 시작되면 중보기도단원들은 마음을 모아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 예배가 마치면 기도사역을 마무리하고 서로 다과를

나누며 격려하고 아울러 서로를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 마무리한다.

나. 주일 예배 중보기도제목

예배 전 찬양시간부터 축도시 까지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기도해야하기에 그 내용이 자세하고 분량이 많다. 기도자에게 처음에는 기도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고, 가급적 집에 가져가서 기도제목을 익숙하게 읽어 오도록 한다. 점차로 각 순서의 기도제목이 익숙해지면 기도제목을 보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지도한다. 주일 예배의 각 순서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201]

(1) 예배드리기 15분전 준비기도

(가) 자신을 위한 기도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는 날까지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저의 부정한 입술과 때 묻은 마음과 정결치 못한 행실을 고백하오니 우슬초로 씻으사 정결케 하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마귀의 정죄를 이기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서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사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 기도하는 기쁨과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 주께서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지키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변화되고 충만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나) 영적인 전쟁을 위한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온전히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일 중보기도사역을 보호하시고 도우소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기도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소서. 중보기도 하기에 적

201) 주일 2부예배시 실제로 사용하는 중보기도제목을 소개한다.

합한 영적, 심리적, 육체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장소의 모든 조건을 인도하사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이들을 위하여

주차 관리를 돕는 주차 안내위원들의 건강한 영적, 정서적, 육체적 상태를 위해, 주차 위원들이 안내할 때에 친절함을 주시며 성도들이 잘 순종하여 차량의 흐름이 원만하고 효율적인 주차가 이뤄지도록. 영상과 음향상태 그리고 조명과 실내 온도 등이 잘 준비되게 하소서. 안내 및 봉사 위원들이 밝고 친절하게 봉사하여 질서 정연하게 하소서.

(라) 예배시작 전 찬양을 위하여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맑은 성대를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을 붙드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회중들을 이끌게 하소서, 인도자, 반주자, 싱어들, 온 회중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2) 예배의 각 순서를 위한 기도

(가) 부름과 참회의 기도와 찬양순서를 위한 기도

찬양 인도자와 사회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의 성대를 지키시고 저의 얼굴을 도우사 회중들을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가운데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성도들이 신앙고백을 할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며 진리가 저희들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마음의 근심과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 대표 기도하시는 분(장로님)을 위하여

온 성도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저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시간동안 기도하실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더사랑의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사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더불어 마음에서부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다) 광고를 위하여

광고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잘 인식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며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중요한 행사나 알림 사항들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효율적인 광고 전달이 되게 하시되 지루하지 않고 성도들이 잘 집중하게 하소서

(라) 성가대 찬양을 위하여

성가대가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미리 나와 연습하고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기름 부으사 축복하시고 저들 자신이 먼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목소리가 아니라 성가대원 전체의 삶과 인격이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소서. 영으로 찬양하며 온 성도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이 찬양을 통해서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휘자에게 은혜와 영감을 주시고 피아노 반주자와 지휘자의 호흡이 잘 맞으며 성가대원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조화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 드리게 하소서. 다윗이 수금 탈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에 저들에게 다윗에게 부으셨던 성령을 부으시고 그 연주

를 통해서 악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모일 때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가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 주소서.

(마) 성경 봉독을 위하여

성경을 봉독할 때에 이 성경봉독이 단지 설교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고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봉독하는 목사님의 성대와 마음을 지키사 듣는 이들이 잘 깨닫고 그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며 함께 봉독하는 성도들도 전심으로 봉독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바) 설교시간을 위하여

1) 설교자를 위하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그 입술에서 전파 하시는 말씀이 권능 있고 권세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육체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사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마음에 근심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이 그 마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 입술에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설교를 듣는 청중과 민감하게 영적 교통을 이루어지게 하사 성도들과 크게 공감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나 반응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민감함으로 말씀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설혹 설교가 준비된 대로 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령의 자연스런 인도하심을 의지하도록, 언어 구사력과 필요할 때마다 순간적 지혜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도록 역사하소서.

2)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설교자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들 역시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총명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열린 마음을 주사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소서. 비고 넓은 마음을 주사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게 하소서. 열린 귀를 주셔서 학자처럼 알아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린 눈을 주사 설교를 들을 때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적극적인 자세를 주소서. 특별히 설교의 맥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주옵소서. 설교의 내용 중 어떤 한 부분이 자신의 처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소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3) 설교시간 중에 일어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의 광채가 비추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과 회개와 구원과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으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설교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가 회복되고 직장과 사회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신앙생활에 나태해진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 긴장을 회복하며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증인으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4) 설교시간의 분위기를 위하여

본당 전체의 분위기가 성령의 임재로 뜨거워지며 소란한 잡음이나 어린아이들의 소음 또는 핸드폰이나 호출기의 소음이 없게 하소서. 본당 이외의 여러 비디오 실에서 드리는 예배의 분위기 역시 본당의 분위기와 같이 충만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되게 하소서. 설교에 방해되는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각종의 기계장치나 스피커 등, 방송과 관련된 제반 장치가 잘 작동하게 하소서. 설교 후 성도 상호간에 인사를 나눌 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소서.

(사) 이 시간에 드려지고 있는 다른 기관의 예배를 위하여

2부 예배시간에 드려지는 부서는 5개 부서(중등부, 고등부, 유아1부, 유치1부, 유년1부, 초등1부)의 설교하시는 교역자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예배시간에 어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동일한 은혜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소서. 어릴 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생애가 되게 하소서.

(아) 설교 후 찬송과 결단의 기도시간을 위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설교를 통하여 얻은 은혜를 새롭게 다시 인식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와 헌신과 결단이 이 시간에 새롭게 하셔서 세상으로 향할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자) 헌금 시간을 위한 기도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가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게 하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물질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씻겨 가게 하소서.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사 곡간이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이후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소서. 형편이 어려워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헌금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헌금 위원들이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주님과 성도들을 극진히 섬기는 자세가 되도록 하소서. 헌금 시간에 자리를 이동하거나 도난 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하소서

(차) 축도를 위한 기도

주여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정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게 하옵소서.

(카) 축도 후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들은 말씀을 마귀가 노략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일주일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사 안전하게 하시고 주일을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가정 가운데 평강으로 지키소서. 예배가 교차될 때에 혼잡이 없도록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질서정연하고 신속하게 돌아 가게하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우사 다음예배(3부)를 잘 준비하시며 예배중간에 여러 가지 만남이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실 때에 지혜를 주시고 목사님의 마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소서.

다. 주일 예배 중보기도사역의 유익[202]

스필전(Charles Haddon Spurgeon) 목사가 목회부흥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회 지하에서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여줬다는 일화처럼, 더사랑의교회에도 주일예배가 되면 기도실에서 중보기도하는 많은 성도들로 인해 예배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주일중보기도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역을 통해서 얻은 유익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다. 1위는 이 사역을 통해서 말씀사역자를 돕고자 하는 동역자 의식이 생겨났다고 한다. 2위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예배가 풍성해졌다고 고백한다. 3위는 교회에 대한 사랑, 비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위는 영적인 전쟁,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 5위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다. 그 외에 영적회복(주님께 특별한 사랑받음을 느낌), 성령충만, 동역자를 통해 성장하게 하심, 기도의 시간이 늘어남, 기도를 배울 수 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얻었다는 등의 대답이 있었다. 설문을 분석해보면 주일예배와 말씀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 복회자, 예배, 교회에 대한 사랑과 동역자의식이 생겨났음을 알게 된다. 매주 나 자신만이 아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과 안목이

202) 주일중보기도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열려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중보기도사역을 통해서 교회도 성장하지만, 기도하는 본인이 성숙하게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을 본다.

4. 긴급문자(SMS) 중보사역

급한 병환이나 위중한 수술을 앞둔 환우 등 급박한 상황으로 기도카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나 담임목사의 외부 집회가 있을 시 기도제목을 간략히 문자로 전송해서 기도한다. 이미 교적에 중보기도 헌신자 연락처가 분류되어 있어서 즉각적으로 전송이 가능하며, 전송은 중보기도 담당 교역자나 여건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교구 목사가 대상자들에게 발송한다. 외부에 나와 있는 경우라도 스마트폰용 교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발송할 수 있다. 중보기도사역자들은 문자를 받는 즉시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시간 내 기도한다.

5. 주일설교준비를 위한 토요 중보기도 모임

토요일 새벽기도가 마치는 오전 6시에 매주 10-20명 사이의 인원이 담임목사의 주일설교 준비를 위하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 기도시간은 보통 30분-1시간이다. 이때의 초점은 말씀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내적, 외적 환경의 준비와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대적하며 기도한다.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도록 한다. 필요한 예화와 찬양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한다. 또한 묵상한 말씀이 원고로 잘 옮겨지도록 질서정연한 논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의 말을 빌리자면 설교는 불붙은 논리(logic on fire)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 중보기도단 일일 부흥회

중보기도사역의 장점은 기도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6개월 이상을 정해진 시간에 헌신한대로 자율적으로 나와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때에 성도들은 기도로 동역을 하는 것이다. 중보기도사역은 성도들이 기도로 목회의 사역에 동참케 하는 평신도훈련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간의 사역은 꽤 긴 기간이기 때문에 자칫 지치거나 타성에 젖을 염려가 있기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모임을 가진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중보기도학교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중보기도의 스피릿을 새롭게 한다.

제 3 절 기도 학교

기도의 성장을 위해서 단계 단계마다 적절한 기도의 가르침이 있어야한다. 더사랑의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세단계의 기도학교를 개설하여 훈련시키고 있다. 첫째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더사랑기도학교이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사역자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중보기도학교이며, 세 번째는 중보기도사역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기도사역팀 구성을 위한 주기도학교이다. 이 세 가지 학교의 커리큘럼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더사랑의 기도학교

가. 더사랑의 기도학교의 성격

본 과정에서는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자세, 방법 등을 가르쳐준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매시간 강의와 실제적인 기도실습으로 진행된다.

나. 더사랑의 기도학교의 강의내용과 커리큘럼

1강에서는 성경 속 위인들의 기도의 자세와 응답을 살펴봄으로서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고,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초점을 둔다. 2강에서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한 은혜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속에서 기도가 성장할 때에 어떤 기도에 이르게 되는지를 강의한다. 3강에서는 기도응답을 받는 올바른 자세와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강의한다. 4강에서는 기도가 지정의의 인격적인 교통임을 기억하고 지적, 의지적, 감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훈련해야할 것인가를 살펴본다.[203] 5강에서는 묵상

---

203) 이상의 강의 내용은 본 연구자의 저서인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생명의 말씀사)에 자

기도, 통성기도, 대화식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침묵기도, 산기도등의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6강에서는 교회내의 기도사역을 총괄하는 H팀의 비전을 소개하고 중보기도학교, 기도사역팀, 기도하는 엄마들, 그리고 정기 기도집회등 다양한 기도사역에 대해서 소개하여 지속적으로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갈 것을 권면한다. 강의의 진행방식은 10분 찬양, 70분 강의, 30분 기도 실습으로 총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더사랑기도학교 커리큘럼>
1강 성경의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
2강 기도의 법칙과 성장
3강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4강 기도의 기술
5강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
6강 교회 내 H팀의 비전과 기도사역 소개

2. 중보기도학교

가. 중보기도학교의 성격

중보기도사역은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사역이다. 중보기도는 먼저 철학과 신학적인 기초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기도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8개의 강의를 듣고 훈련받는 중보기도학교가 필수코스이다.

나. 중보기도학교 강의 내용과 커리큘럼

1강과 2강에서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성도가 어떻게 중보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를 강의한다. 3강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말씀사역의 부흥에 대해서 다루며, 4강에서는 병든 자를 위한 치유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5강에서는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훈련해야할 필요성과 방법 강의하고 6강에서는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권세로 어떻게 극대화시켜 교회

세히 기록되어져있다.

안에서 기도사역을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7강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경호하고 보호하는 기도의 필요성과 방법을 강의하고 마지막 8강은 구체적으로 중보기도사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참석자들의 헌신을 받는다. 강의는 70분 강의, 10분 기도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강의의 특성에 따라 기도시간을 20-30분 정도 가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중보기도학교의 실제적인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표17> 중보기도학교 커리큘럼

일 시		강 의 내 용
1일차	1시간20분	1강: 중보기도의 통치권:왕(1)
	1시간20분	2강: 중보기도의 치유:제사장(2)
	1시간20분	3강: 중보기도와 발씀사역
	1시간20분	4강: 병든 자를 위한 기도
2일차	1시간20분	5강: 기도의 훈련(지정의)
	1시간20분	6강: 중보기도단의 권세와 승리
	1시간20분	7강: 경호기도와 여리고작전
	1시간20분	8강: 사역소개 및 헌약식

3. 주기도학교

가. 주기도학교의 성격

주기도학교는 중보기도사역을 수료한 성도들 중에서 기도사역에 은사가 있는 헌신된 기도사역자를 발굴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도사역팀 맴버가 되어 지속적인 기도사역에 헌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주기도학교의 강의 내용과 커리큘럼

1강에서는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주기도문의 중심사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와 기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서 기도사역의 신학적인 기초를 다진다. 2강에서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사상에 기초한 기도사역의 모범을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살펴본다. 3강에서는 교회사속에서 주기도문의 정신에 입각한 기도사역이 어떻게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

본다. 4강에서는 더사랑의교회가 그동안 진행해온 기도사역의 역사와 열매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기도사역의 비전과 전략을 살펴본다. 5강에서는 기도사역팀의 철비전과 사명을 다루고 마지막 6강에서는 앞으로 할 사역소개 및 헌신서약 시간을 가지고 기도사역팀 가입을 축하한다. 주기도학교의 강의 제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주기도학교의 커리큘럼 >
1강 주기도문의 중심내용과 기도사역
2강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도사역
3강 교회사속에 나타난 기도사역
4강 더사랑의교회의 기도사역의 역사와 현재
5강 오늘날의 기도사역의 사명과 비전
6강 기도사역팀의 사역소개 및 헌신

제 4 절 기도사역팀의 결성과 운영

1. 지속적인 기도사역의 한계 요인

더사랑의교회 초기부터 시행된 중보기도학교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의식을 깨우고 기도사역자로서의 자질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로 성도들은 점차로 중보기도사역을 더사랑의교회 성도라면 한번 거쳐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도사역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둘째로 중보기도의 사역자들은 대체로 헌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분주한 사역으로 인해서 기도사역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 셋째, 결과적으로 6개월 정도의 중보기도학교와 사역으로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 동안 1,280명이 중보기도학교를 이수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기도사역에 헌신하는 숫자는 그 인원의 10퍼센트 안팎에 머무는 실정이다. 마치 차체는 커져서 그 중량은 늘었는데 엔진의 출력의 힘은 그 중량에 비례해서 늘지 않아 힘이 모자라는 자동차처럼, 더사랑의교회는 기도라는 엔진이 몸집에 비해서 함께 커나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2. 기도사역팀의 필요성

기도사역은 보편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한다. 누구나 전도해야하지만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며 전도팀을 운영하듯이, 기도사역 역시 누구나 해야 하는 보편적인 사역이면서도 동시에 기도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을 따로 모아서 훈련하고 세워야할 전문적 사역이다. 피터 와그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중보기도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있다고 말한다.[204] 그는 또한 한 교회에는 평균 5퍼센트의 성도들이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80센트에 달하는 중보기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다.[205] 실제로 교회 내에는 중보기도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며 더 많은 시간을 정규적으로 기도하고 많은 기도응답의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

피터 와그너는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첫째는 오래 기도하되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하고 심지어 5시간 이상 기도하고 둘째로는 남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깊이 하며, 셋째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넷째로 기도응답의 경험이 많고 그 간증이 극적인 편이라고 말한다.[206] 기도훈련과 사역을 하다보면 반드시 이러한 성도들을 발견하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기도사역팀을 결성하면 기도사역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존 맥스웰(Maxwell, John)은 기도 동역자팀을 결성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기도가 최우선이 되고, 둘째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든든한 지지팀이 생겨나게 되고, 셋째는 지도자 개인 사역에 열매가 많아지며, 넷째로 기도 동역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가 사역했던 스카이라인교회에는 120명의 기도 동역자가 있었고, 현재의 INJOY사역을 위한 기도동역자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207] 더사랑의교회도 이미 중보기도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누려왔지만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기도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사역팀을 구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직시하게 되었다.

---

204) C. Peter Wagner, *방패기도 (Prayer shield)*변성훈 역(서울: 서로사랑, 1999), 54-55.
205) Ibid., 46.
206) Ibid., 56.
207) John Maxwell, *기도 동역자, (Partners in Prayer),* 정인홍 역 (서울: 디모데, 1998), 173-175.

3. 기도사역팀의 비전

기도사역팀의 비전은 첫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한다. 둘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변화되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것을 꿈꾼다. 셋째,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것을 확신한다. 넷째로 기도사역에 전념함으로서 항상 하나님나라에 마음을 두되, 기복적 기도나 은사운동, 체험 운동 등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섯째 우리의 기도 사역과 모범을 통해 기도사역의 부흥이 일어나길 갈망한다.

4. 기도사역팀의 구성과 사역

가. 자격과 의무

기도사역팀원이 되려면 중보기도사역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지원서를 제출해야한다. 기도사역팀의 사명과 비전에 동의해야하고, 우선적으로 주일중보기도사역에 헌신해야한다. 그 외에 필요한 중보기도사역과 팀 지원 기도사역에 헌신해야한다. 또한 일년에 한차례 있는 기도사역팀 수련회를 참석하여야한다.

나. 조직

기도사역팀은 팀장과 부팀장, 조장, 그리고 행정부로 이루어진다. 먼저 팀장은 기도사역팀을 총괄하며 중보기도단의 단장을 겸임한다. 조장은 전체 멤버 중에 성숙한 리더들을 세우고 조장을 중심으로 전체 팀을 10개조로 나눈다. 10명의 조장 중에 3명을 선정하여 부팀장으로 임명하고 부팀장을 중심으로 3, 4개조를 합쳐 전도부흥기도팀, 치유기도팀, 말씀부흥기도팀을 담당케 한다. 조를 중심으로 긴급기도문자 및 전화기도 체인을 돌려서 기도한다. 아울러 팀장과 부팀장은 1-4부 주일중보기도의 인도자가 된다. 행정부는 기도사역팀 전체의 행정과 중보기도사역의 행정을 담당한다.

다. 사역

기도사역팀은 첫째로 주일예배중보기도 사역에 최우선순위를 둔다. 가장 중요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함이다. 둘째로 기도사역팀은 교회 내 중보기도사역의 활성화를 힘써야한다. 주일중보기도는 물론 주중에 진행되는 릴레이중보기도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비어있는 시간을 메운다. 아울러 중보기도의 일군들을 발굴하여 기도사역이 쉼 없이 이어지도록 하며, 교회 내 운영되고 있는 중보기도사역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중보기도단에 기도를 요청하도록 하며, 기도제목의 수거를 돕고, 기도제목을 입그레이드하는 등의 행정적인 사역을 지원한다. 셋째로 조를 중심으로 형성한 세 개의 팀을 통해서 교회 내 전도, 기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더사랑의교회 내 모든 기도 집회 등의 그루터기 역할을 감당한다. 넷째로 한 달에 한 번 있는 더기도부흥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기도회 및 모임을 가지며, 일 년에 한차례 있는 수련회에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기도사역팀은 하루 세 번, 5분 주기도 운동을 전개한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루 세 번의 기도습관을 이어왔다. 초대교회는 이 하루 세 번의 기도에 더해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중세 그리스도인들과 수도사들은 예수님이 깊이 잠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마26:40)고 하셨던 도전에 토대를 두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성무일도(divine office)라는 것을 지켰다.[208] 심지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하루 일곱 차례 일곱 시간을 매일 기도와 시편묵상에 전념했다. 매일 기도하는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함으로서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이 타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 세 번, 5분 주기도운동을 의미 있고 효율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먼저는 기도사역팀원 자신이 매일 주기도문 5분 기도카드를 가지고 하루 세 번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문 5분 기도카드를 설명해주고 카드를 나누어주어 기도하도록 한다. 무조건 주기도문 카드를 나누어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기도문 기도카드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성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주기도문 5분 기도사역을 하도록 이끌어준다. 가급적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주기도문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한다.

---

208) Timothy Keller, *팀켈러의 기도*, 333.

5. 기도사역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언

기도사역팀이 잘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기도사역자들이 교회와 담임목사를 사랑하고 신뢰해야한다.[209] 이를 위해서 기도사역자들과의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한다. 일 년에 한번, 연말이나 연초에 기도사역자 수련회를 개최하여 한해의 목회사역의 주안점과 주력해야할 중점기도제목을 알려 준다. 담임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목회철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설명해야한다. 아울러 해마다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여 기도사역에 다시 한 번 헌신하도록 하고, 일 년 사역 서약을 하도록 한다. 또한 분기마다 기도사역자들을 격려하는 모임을 가지도록 한다. 매월 진행되는 일일부흥회를 3개월이나 4개월에 한번 씩 담임목사가 인도하고 그 날은 기도사역자들과 함께 오찬을 가지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설교나 광고시간에 기도사역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사역이 설교와 예배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언급해야한다. 그리할 때에 자신들의 사역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

209) John Maxwell, *기도 동역자*, 176.

제 6 장
결 론

본 연구자는 "쇠퇴기에 돌입한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해답은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 사역의 회복에 있다고 보았다. 역사적으로 기도의 부흥이 있을 때에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 한국교회의 부흥도 바로 기도의 부흥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왜 한국교회의 기도가 침체하였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주기도문에 기인한 바른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올바른 기도사역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았다. 많은 기도가 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정신을 따르기보다 기복적, 이기적, 세속적인 기도로 변질된 데에 한국교회의 무력함의 원인이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주기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기도사역을 교회 안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1 절 요약

2장에서는 기도사역을 위한 신학을 주기도문 연구를 통해서 다루어 보았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현장과 같은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오길 간구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하는가를 다루면서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구할 것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기도해야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통치아래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 청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서언, 종언, 부언의 나타난 주기도문의 특성 세 가지 특성, 즉 주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사실과 주기도

는 승리와 응답의 확신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며, 주기도는 끈질긴 인내의 자세를 요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탐구하였다.

3장에서는 주기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도사역의 역사적인 근거를 살펴보았다. 유대주의의 기도전통 속에서 기도사역의 흐름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살펴보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도사역을 어떻게 실천하였는가에 대해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교회사적으로 중세 가톨릭의 타락 속에 일어난 수도원 운동, 종교개혁운동과 근대교회의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운동,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한국의 평양대부흥운동에 이르는 사건들을 탐구하면서 부흥운동과 기도사역의 연관성을 규명하였고, 기도사역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란 사실을 제안하였다.

4장에서는 더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기도사역이 어떻게 태동되었고 정착되었으며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밀려오는 압박감과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사역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교회 내에서 기도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토대를 형성해야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더사랑의교회가 기도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실행하여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고, 그러한 기도사역의 결과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회가 건축과 이전으로 맞이한 변화의 환경 속에서 목회철학을 재정립하고, 주기도의 정신을 담은 기도사역을 목회철학의 근간으로 재정립함으로서 교회의 개척당시뿐 아니라 성장의 전 과정에서 어떻게 기도사역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더사랑의교회 기도사역의 실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응용하여 만든 5분용, 30분용, 자녀용 기도제목을 제시하였고, 수요기도회와 특별새벽부흥회, 기도폭풍집회 등의 정기기도집회를 주기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어떻게 이끌어가야할 지를 제시하였고, 주일예배와 주중릴레이 기도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중보기도사역 가운데 어떻게 주기도의 정신과 목적에 합당한 기도사역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 모든 기도사역을 위한 기도학교의 강의 내용과 운영방법을 살펴보았고, 훈련받은 기도사역자들이 지속적인 기도사역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사역팀을 결성해야할 것을 제안하고, 그 조직과 사역 운영방법을 살펴보았다.

제 2 절 제언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사역과 목회의 경험을 통해 소수의 성숙한 성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대다수의 성도들의 기도는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쳤을 때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교회의 건강하고 강력한 기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기복적인 기도의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합해 기도하는 교회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신다.

올바른 기도사역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먼저 목회자는 기도사역의 신학을 올바르게 세워야한다. 오늘날 많은 기도사역들의 문제는 그 토대가 되는 기도신학이 부실하고,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함으로서, 많은 부작용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목회자는 먼저 기도사역의 명백한 성경적인 토대를 공부하고, 기도사역자들에게 성경적인 기도사역의 원리를 가르쳐주어야한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사역의 토대로 가장 확고하고 명확하다. 아울러 교회사속에서 성경적이면서 개혁주의적인 기도사역의 모델을 찾고, 건강한 열매로 검증되어진 역사적 기도사역의 모범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기도사역이 단지 개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잇는 중요한 사역임을 인식시켜야한다.

둘째, 기도사역을 정착시키려면 실제적인 준비와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기도사역을 정착하려면 기도의 열정과 성경적인 신학이 있어야하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지혜도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 기도사역을 정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교회 내 영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먼저 기도사역을 할 수 있는 토대와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기도 사역을 위한 기초멤버를 모으고, 기존의 기도모임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하며, 새로운 기도프로그램을 교회에 맞게 준비할 수 있어야한다. 아울러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싸움에 맞서 강력한 확신과 열정으로 추진해 가야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기도는 없어도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생명과 같은 필수요소이다.

셋째, 기도사역이 정착되려면 목회자의 기도의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 성도들은 목회자만큼 기도한다. 그러므로 목회자 자신이 기도의 영성이 없다면, 그 목회자가 인도하는 기도사역은 영성 없는 기도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 먼저 목회자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시길 간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주시길 날마다 사모함으로 기도해야한다. 아울러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심야기도회, 산상기도, 특별집회 등의 시간마다 기도로 정성껏 준비하여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주시는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야한다. 이러한 기도회 인도의 경험 속에서 점차로 강력한 기도사역자의 영성이 준비될 것이다. 목회자들의 인격과 삶이 본이 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기도사역자로서의 목회자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가 있고 성결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며 머리 깎인 삼손처럼 기도의 능력은 떠나고 만다.

넷째, 성도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야한다. 그들에게 주기도의 정신을 가르치고 기도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어 기도가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이끌어주며, 기도의 범주도 개인과 가정에 머물지 말고, 다른 성도들, 이웃들, 교회, 지역사회, 나라와 온 세계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성도들 중에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따로 선발하여 교회 내 기도사역자로 세워서 목회의 기도 동역자로 삼는다면 목회자는 날개를 달게 될 것이고, 교회는 에스겔 골짜기의 군대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점점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이때에 아무쪼록 이 부족한 논문이 교회 내 기도사역을 굳게 세우는 일에 용기를 불어넣고 실제적인 지침이 되어 한국교회가 기도로 다시 일어나는 부흥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고 문헌

1. 국문서적

강병도. *호크마종합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1999.

국민일보. "독일을 넘어 미래 한국으로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공동체 같은 영성이 필요하다." 2013년 11월 3일자.

김남준. *깊이 읽는 주기도문*.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김명혁. "독일 경건주의 소고." *신학지남 1979 가을*.

김문기. "경건주의와 목회적인 적용."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0집·제2호*, 1998.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서울: 두란노, 2000.

_____. ***칭의와 성화***, **서울: 두란노, 2013**

김세윤, 김회권, 정현구 공저, *하나님나라의 복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김승욱,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기도부흥운동과 교회갱신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순복음대학원대학교, 2012.

김영재. *한국교회사*.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김영철. *한국기독교청년학생운동사*.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3.

김요한. "미국 대학생선교운동과 우리 시대 세계복음화: Haystack movement에서 SVM선교운동까지." *국제신학 제8권*.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06.

김의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김형국.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서울: 죠이선교회, 201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명성훈. *(하늘 문을 여는)중보기도: 전략 52가지*. 서울: 국민일보, 1999.

박영환, *네트워크 선교역사*. 서울: 도서출판 바울, 2012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박종구. *무디선생의 생애*. 서울: 信望愛社, 1973.

손혜진. "주기도문의 유대적 배경." *그 말씀 1997년 3월호*.

수원시. 2014년 수원시 조사발표 자료-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71-3740000-

000115-10.

수지사랑의교회(현 더사랑의교회). 주보 모음집

용인시. 제9회 사회조사 결과표[용인]. 2014년 12월 16일자.

유재덕. *(기독청년) 학생운동의 방향성.* 서울: 도서출판 정인, 1994.

이동원. *중보기도 파티.* 서울: 두란노, 2005.

이덕주, *한국교회이야기.*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09

이인호.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정준기. "니콜라스 진젠도르프에 관한 연구." *광신논단.*

조기연. *기도의 정석: 초대교회에서 배우는 영성 깊은 기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조연주. "주기도문에 나타난 중보기도요소."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8.

조종익.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요인분석을 통한 교회성장전략."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주도홍, *주기도문의 바른 사용을 위한 역사적 고찰과 제안,* 그말씀, 1997년 3월호.

진상천. "독일 경건주의 신학에 근거한 선교 동인과 사역 및 그 영향." 석사학위 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차교범.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채영삼. *삶으로 드리는 주기도문.* 서울: 이레서원, 2014.

최갑종. *예수님이 주신 기도.* 서울: 이레서원, 2000.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지속가능한 한국 교회를 위한 최초의 미래학 보고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한 홍. "거칠고 야성적인 서부의 부흥운동." *빛과 소금.* 통권 149호, 1997. 9.

홍기영.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 *한국선교신학회 선교신학 16권 3.*

2. 번역서적

Beeke, Joel R., Brian G. Najapfour. *고전에서 배우는 기도특강 (Taking Hold of*

God). 이혜림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4.

Beougher, Timothy K., Lyle W. Dorsett. *1995년 휘튼대학 부흥이야기(Accounts of a Campus Revival).* 백금산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4.

Blair, William, Bruce Hunt.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 (Korean pentecost).*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Bryant, David. *영적각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 합주회 (How Christianscan Join together in Concerts of Prayer:for spiritual awakening and world evangelization).* 안진원 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1.

Calvin, John. *기독교 강요(중)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_____. *기독교 강요(하)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Caecilius, Cyprianus. *치쁘리아누스: 도나뚜스에게; 가톨릭 교회 일치; 주의 기도문 (Ad. Donatum. In cipit de ecclesiae catholicae unitate. Dedominica oratione).* 이형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7.

Duewel, Wesley.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 (Revival fire).* 안보헌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Edwards, Jonathan. *기도합주회 (Concerts of Prayer).* 정성욱, 황혁기 역. 서울:부흥과 개혁사, 2000.

Foster, Richard J., Dallas Willard, 성영 탠, 이동원, 이철신, 홍정길, 강준민 공저.*지금 이 순간, 이루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Gonzalez, Justo L. *초대교회사 (Story of Christianity).*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Hiebert, Paul G. *문화속의 선교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채은수 역. 서울: 총신대출판사, 1987.

Howard, David M. *학생운동과 세계복음화 (Student Power in World Evangelism).* 편집부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0.

Hagner, Donald A. *마태복음,* WBC성경주석, 채천석 역.서울: 솔로몬출판사, 1999

Kane, J. Herbert. *기독교 세계 선교사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1.

Keller, Timothy. *팀 켈러의 기도 (Prayer: Experiencing Awe and Intimacy with God).*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5.

Koenig, John. *신약성경의 기도 (Rediscovering New Testament prayer; boldness and blessing in the name of Jesus).* 오성춘 역. 서울: 하늘향, 2014.

Lloyd-Jones, David Martyn.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 (Revival).* 정상윤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6.

_____.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Puritans: their origins and successors).* 서문강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Maxwell, John. *기도 동역자: 사역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추진력 (Partners in Prayer).* 정인홍 역. 서울: 디모데, 1998.

Neill, Stephen. *기독교 선교사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홍치모, 오만규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Nolland, John. *누가복음.* WBC성경주석, 김경진 역. 서울: 솔로몬출판사,1999

Ridderbos, Herman. *하나님 나라 (The Coming of the Kingdom).* 오광만 역. 서울: 솔로몬, 2012.

Schaff. Phillip. *교회사전집.6, 중세시대 보니파키우스 8세부터 루터까지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6).* 이길상 역.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Sheets, Dutch.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김주성역. 서울: 베다니, 1998.

Simpson, William W. *유대인의 예배와 기도 (Jewish prayer and worship).* 류제영 역. 서울: 예본출판사, 1999.

Towner, W. Sibley. *현대성서주석: 다니엘서 (Bible. O.T. Daniel-Commentaries).* 신정균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4.

Vos, Geerhardus.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urch).* 정정숙 역. 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1.

Wagner, C. Peter.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Churches that pray).* 홍원팔역. 서울: 서로사랑, 1998.

_____. *방패기도 (Prayer shield).* 명성훈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Wilkins, Michael J. *마태복음*, NIV적용주석,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9

Wright, Nicholas Thomas.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Surprised by Hope).* 양혜원 역. 서울: IVP, 2009.

_____.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 (Lord and His Prayer).* 전의우 역. 서울: IVP, 2014.

3. 외국서적

Jeremias, Joachim. *The Prayer of Jesus.* Naperville,Ⅲ: A. R. Allenson, 1967.

Vita of
In Ho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Thesarang Church, Suwon.

Personal Data

Birthdate:	September 5, 1962.
Marital Status:	Married to Hyun Jung Lee with child, Su A, Sang Hun, Si On
Home Address:	Keumho Apt. 153-1601 Ssanhyun Dong 827, Suji Gu, Yongin,
Phone:	031-262-4302
Deno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October 12, 1992

Education:

B. A.:	Konkuk University, Seoul, 1988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1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Ministerial Experience:

2003 to present:	Senior Pastor of Thesarang Church, Suwon
1995 to 2002:	Assistant Pastor of Sarang Community Church, Seoul
1988 to 1994:	Assistant Pastor of Bangju Church, Seoul